

OLP JOURNAL



2018

March VOL.19



송년의 밤



Opinion
Leaders
Program
저널



OLC대상 및 송년의 밤

2017. 12. 07 (목)
일레니엄서울일본 그랜드볼룸 (남산)



OLC 가족초청 문화행사
10월 정기여행



발간사

OLP 20기 회장 박설웅

신년사

OLC 7대 회장 어진

OLP가 보는 세상

2018년 이렇게 바꿉니다
가상화폐, 년 도대체 뭐냐
내 아이 의사 만들기!

OLP Special

2017 'OLC 대상 및 송년의 밤'
2017 'OLC 대상' 수상자 인터뷰
2017 'OLC 연합 골프대회'

우리투게터

고객님 곁에서 더 든든한 우리은행이 되겠습니다





www.dkcsteel.com
www.dkcs.co.kr

DKC!! DKCS!!

그 이름만으로도 스테인리스스틸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스테인리스스틸에 대한 열정과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지금의 DKC · DKCS의 브랜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스틸처럼
식지 않는 열정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세계속의 스테인리스스틸 전문기업이 되겠습니다.



D K C / 본사 · 공장 TEL: 054-245-3000 FAX: 054-245-3122
서울사무소 TEL: 02-3016-2832 FAX: 02-567-7820
부산사무소 TEL: 051-315-9122 FAX: 051-315-9126

해외법인 / 일본판매법인 TEL: 81-3-3568-2423 FAX: 81-3-5573-5723

DKCS / 본사 TEL: 02-2631-9541 FAX: 02-2631-6022
화성공장 TEL: 031-352-4267~9 FAX: 031-352-4265
부산사무소 TEL: 051-315-9127 FAX: 051-315-9129
시화물류센터 TEL: 031-434-1292 FAX: 031-434-1294
시흥물류센터 TEL: 031-471-1293 FAX: 031-431-1294
중부물류센터 TEL: 042-936-8680 FAX: 042-936-8650

신한카드 인도네시아 | Dhia Nabilla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신한으로 연결된거죠

대한민국에서 온 금융이
인도네시아에 뿌리를 내려
새로운 가능성을 펴뜨리고 있으니
두 나라가 함께 더 강해질겁니다

나는 新韓人.입니다

아시아 최대 도심형 아울렛 마리오아울렛

마리오아울렛은 국내·외 유명 패션브랜드부터 가구, 전자제품, F&B까지
600여개 브랜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고품격 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www.orientbio.co.kr

Global First Partner

바이오 강국을 향한 도전, 오리엔트바이오가 앞장섭니다.

ORIENT ORIENT BIO

Share the **Experience**
Share the **Value**



OLP JOURNAL

Opinion Leadership Program

Contents



9	발간사	박설웅		
12	신년사	어진		
OLP Cover Story				
16	우리가 바로 서강대학교 OLP다	이용문		
OLP가 보는 세상				
24	2018년 이렇게 바뀝니다	이철형		
28	가상화폐, 년 도대체 뭐냐	박상주		
32	내 아이 의사 만들기!	김형일		
OLP Special				
38	2017 'OLC 대상 및 송년의 밤'	허원순		
42	2017 'OLC 대상' 수상자 인터뷰	김석		
46	2017 'OLC 연합 골프대회'	김석		
50	OLC 산악회_안동	박상주		
54	OLC 시네오페라_피카로의 결혼	정지철		
58	21기 졸업 여행	강영구		
OLP 원우의 나의 회사 이야기				
64	30년간 한 우물 파기로 이룩한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인프라 기업, 오리엔트바이오	장재진		
68	'마약팬티' 라쉬만 한 번 입어보면 못 바뀌요	백경수		
OLP Travel Essay				
72	런던 아이		지태현	
OLP Essay				
76	못말리는 내 버릇		홍승일	
78	미장원에서서의 참극		고철종	
80	사진으로 세상을 옮기는 방법		문규선	
82	성공을 방해하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 13가지		김상민	
86	여자 프로골퍼들의 귀		안미현	
88	의식이 족해야 예를 안다고? 예를 알아야 의식이 족해다가 아니고?		김수영	
90	중국의 차부뚜어 선생과 한국의 나보기(내생각) 선생		김상민	
94	체스키크롬로프 가는 길		지태현	
OLP News				
102	OLC 원우수첩이 휴대폰 속으로!			
104	OLP 회원동정			
106	OLP 21기 입학 안내			
OLP를 말한다				
108	21기 회장		홍재식	
109	21기 간사장		이윤희	

'OLP(Opinion Leaders Program)'는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기업체 간부와 전문직 중견연륜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제, 경영전문과정입니다. <OLP JOURNAL>은 'OLP' 교육을 수료한 멤버들이 경제, 경영 현안을 중심으로 기업인과 언론인들의 상호이해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작하는 저널입니다.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ISO
14001



ISO
9001



아우소싱서비스
종합대상

Manufacturing Production

생산, 제조, 유통, 공항 기내식, 조리보조,
사무 관리원, 판매, 단체급식, 구내 식당운영

Logistics Service

공급망 관리, 물류센터, 창고관리

Global Business

- 고배송(해외 직구 배송대행-미국 뉴저지, 델라웨어)
- 중국 법인 (우시삼구전기안전유한공사)

Property Management

임대차관리, 투자관리, 부동산 자산평가

Samkoo



Facility Management

미화, 시설관리, 조경, 영선, 안내

Silver Care Service

노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

Security

특수경비, 시설경비,
불법감청설비탐지,
V.I.P.의전, 보안컨설팅

GreenS Service

공조기 필터 납품, 냉난방기 종합세척,
주방 후드/덕트 세척 등, 바닥마감재 특별관리

ACOS

(Albatros of Countryclub One-stop Service)

Agency(마케팅), 클럽하우스 대식당,
골프장 시설관리(FM), 구내식당

발간사

G R E E T I N G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동문회로 성장하였습니다.

O p i n i o n
L e a d e r s
P r o g r a m



클.
박설웅

OLP 20기 회장
(株)에스디생명공학 대표이사

서강대학교 OLP동문여러분!
어느덧 OLC도 외기를 배출할 정도로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동문회로 성장하였습니다.



OLP의 탄탄한 집행부 구성 및 꾸준한 후배 기수의 배출은
이 자체판으로도 많은 분들의 노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훌륭한
성과이며 OLP동문회 회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강대학교 OLP동문여러분! 어느덧 OLC도 21기를 배출할 정도로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동문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20기 졸업 후 연초에 처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OLC 선배 분들을 뵙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OLP의 탄탄한 집행부 구성 및 꾸준한 후배 기수의 배출은 이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의 노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훌륭한 성과이며 OLP동문회 회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15년 이상 금융기관 경력을 쌓은 후 10년 전에 화장품업종으로 변신하였습니다. 낯선 화장품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몰랐던 상황에서 직원들과 함께 새롭게 배우며 적응해 왔습니다. “회사는 학교다”, “실행하면서 배우다”라는 모토로 젊은 직원들과 함께 면밀한 준비 없이 무모하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았고, 성공보다는 많은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트러블 케어 제품 라인으로 확장하고자 임상실험을 거친후 특허출원도 하였으며, 외부 디자인 전문가에 포장 디자인 개발 등을 거쳐 에이스 스팟 크림, 로션, 클렌징 폼 등의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이 썩 맘에 들지는 않았으나 전문가에게 거금을 들여 결과물을 보았으니 그대로 출시하였습니다. 결과는 대참패였고 거래처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아 재고로 쌓아두고 있어 자금 회전이 안 되었으며, 다른 제품도 주문을 하지 않기에 본품 생산비용에 맞먹는 샘플을 제작하여 프

로모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품질은 좋으나 용량은 적고 가격은 비싼데다 디자인까지 썩 맘에 들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여도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았기에 결국 제품을 전량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트러블 제품을 심플한 디자인에 용량은 많고 가격은 저렴한 제품으로 대체하여 현재까지도 꾸준히 판매되는 제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회사설립 초기부터 판매해온 기존제품은 주로 온라인 채널에 유통되는 중저가 화장품으로 가격대는 1~2만원 대였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유통망을 확대하고자 1세트에 66만원하는 프리미엄제품인 ‘스텝셀 액티베이터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유통망은 기존의 온라인이나 시판 채널이 아닌 에스테틱 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 영업조직 구축 실패로 인하여 재생산하지 못하고 단종 시키게 되었습니다.

약국유통을 목적으로 팝아트 디자인을 모티브로 소재로한 시트 마스크팩인 ‘팝마스크팩’을 처음으로 출시하였습니다. 모두들 팝 아트를 소재로한 신선한 디자인에 고품질 마스크팩을 체험하고 난 후 “대박”이라고 하였으나, 몇 년간 재고소진을 못해 자금부담의 가장 큰 요인의 품목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3년 후 회사의 진짜 “대박” 품목인 제비집 마스크팩 개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셀룰라이트를 제거해 주는 바디패치 제품은 초기 샘플생산에 반응이 좋아 중국바이어로부터 대량주문으



로 이어졌으나, OEM생산업자의 장기간 생산 차질로 인하여 바이어가 다른 업체의 제품으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이어 주문에 대응하고자 준비해 두었던 대량의 부자재를 보유함으로 인해 자금부담과 이를 소진시키느라 정신적 물질적인 부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골드 및 다이아몬드 슬리핑팩을 출시하였으나 후속 용기 생산 지체로 인한 재고 확보를 못하여 추가 주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매출증가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국내최초로 동물 프린팅 마스크팩의 인기에 이은 후속제품으로 '베이징오페라 프린팅 마스크팩'을 출시하였습니다. 첫 제품 출시 후 품질상의 결함발견으로 인하여 전량 회수조치를 취한 후 재출시 하였으나 이미 타이밍을 놓친 후라 전작인 동물프린팅 마스크팩의 인기를 이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젠틀걸 프린팅 마스크팩'은 국내 유명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출시한 제품으로 제품의 고품질 및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역시 대량 주문을 받아 생산하였으나 중국의 사드 보복 등 정치적인 이유로 창고의 재고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TV홈쇼핑에 판매를 목적으로 '버드네스트 더블유 플러스 브라이트닝 크림'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품의 인지도 부족 및 책정가격의 부정적 등의 원인으로 1회 방송만을 진행한 후 더 이상 방송은 할 수 없었으며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자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도 재고처리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2017년 상반기까지 TV홈쇼핑 방송을 위하여 3가지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으나 처참하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아마도 '서울카페 화장품 시리즈'로 10여종의 제품을 선보였으나 거의 전품목이 재생산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창고의 자리만 차지하는 품목이 되

었습니다. '마음의 소리 시리즈'는 웹툰 작가와의 콜라보 제품으로 10여종의 제품을 출시함과 동시에 버스 래핑광고도 진행하는 마케팅 투자로 해외 수출까지 하였으나 마케팅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송승현 모델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활동을 진행한 것은 금전적으로 가장 큰 실패 중의 하나입니다. 남자 모델로 '타임리스 블랙 옴므 제품'을 출시하여 홈쇼핑방송을 하였으나 송승현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이어가지 못하고 저가의 제품으로 홈쇼핑 방송을 하여 판매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마진이 박하여 제대로 마케팅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1년 광고기한이 끝나 허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실패사례가 있습니다. 화장품회사에 있어 제품개발실패는 곧바로 창고에 재고가 쌓여 시간이 지날수록 창고만 비대해 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화장품업계에는 10,000여개의 화장품 브랜드사업자 및 2,500여개의 제조업자의 난립으로 경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무역환경변화로 기업환경은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시도로 인한 실패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당기의 비용으로 끝나버립니다. 저의 실패를 공유하여야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공의 공유뿐만 아니라 실패의 공유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산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시도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공유함으로써 OLC 조직구성원이 질적인 성장을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OLP**



OLC 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으로 가득할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많은 것을 이루고 발전하며 가정의 안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존경하는 OLC 원우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장하며 유대 깊은 OLC를 이끌어 주신 회장단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그야말로 다사다난 그 자체였습니다. 국내로는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新 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의 변화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국외로는 정치·이념·종교의 대립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전 세계가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새해 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현재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새로운 부(富)를 창출하기 위한 4차 산업 혁명에 지대한 관심과 투자를 진행하여 해당 산업에서의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모범이 되는 우리 OLC 원우님들의 공로가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는 외형적인 위대함 이면에는 새로운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

니다. 과거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시대에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사회와 더불어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향후 4차 산업 혁명이 이끌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과 발전을 꿈꾸게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용 불안 및 불평등 심화,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이 인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도 내재되어 있음이 각계의 우려와 전망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고안해서 창조해낸 결과물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으로, 다른 누군가에는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과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OLC 원우님들,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선에 있는 우리 OLC 원우님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사회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각계각층에서 활약하시는 OLC 원우님들이 자신의 소임을 넘어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가 갈망하는 그 시간은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OLC 원우님 개개인이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OLP**

다시 한번 OLC에 대한 원우님들의 헌신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무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과 안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SAMSUNG



TV를 켜면 세상의 흐름이 보이는 리더의 공간이 되고



TV를 끄면 영감을 주는 아트 갤러리가 됩니다

공간의 프레임을 바꾸다

THE
FRAME

꺼져 있을 때 작품을 감상하는 아트모드 · 공간에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프레임 디자인



OPINION
Cover Story
LEADERS
PROGRAM

‘우리가 바로 서강대학교 OLP다’

이용문 OLP 117기

‘우리가 바로 서강대학교 OLP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손잡고 도입한 OLP는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이 이미 운영했던 또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각종 ‘최고위과정’과 비슷하다는 초기의 평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21기까지 졸업자를 배출하고 22기가 입학 준비하면서, 앞선 최고위 과정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OLP는 대기업의 홍보 담당자들과 언론인, 공무원과 법조인, 여기다 탄탄한 중소기업의 CEO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서강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과도 차별화되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대기업의 홍보부장 또는 임원으로 OLP에 첫 발을 디뎠던 원우들 중에는 최고 경영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도 있고 언론인들도 데스크 부장을 넘어 신문사의 편집국장이나 방송사의 보도국장을 지나 언론사 CEO를 역임했거나 또는 지금도 역임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

또 탄탄한 경영능력을 토대로 OLP 회원들이 뭉치게 하는 콘크리트와 같은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 CEO들의 헌신이 OLP를 21기까지 이어왔고 오는 가을 22기의 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이번 OLP저널에서는 그동안 OLP와 함께 해온 원우들의 발자취와 현재를 정리해 보기로 했다.



클.
이용문

OLP 11기
CBS 산업부 재계팀장



단단한 경영능력을 토대로 OLP 회원들이 뭉치게 하는
 콘크리트와 같은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 CEO들의 헌신이 OLP를
 2기까지 이어왔고 오는 가을 22기의 양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1기 OLP의 첫걸음을 땀다

1기는 이 원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들 한다. ㈜평산 신동수 대표이사 부회장이자. 신 부회장은 OLP 1기 회장과 OLC 초대 회장을 역임한 원우로 '풍력발전기 시장을 꼭 잡은 강철 거인'이다. 또 기수회장을 역임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PEF 업계 최초로 오일머니를 유치한 '스틱인베스트먼트' 도용환 회장과 OLC 감사를 지낸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 서광 대표 김영갑 변호사도 1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우들이다.

이밖에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뒤 최근 외교부 인사에서 주 교황청 대사로 임명된 이백만 원우 역시 1기이다.

대상그룹에서 홍보와 마케팅을 오래 담당하다가 현재 삼암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주홍 원우와 15년째 간사로서 1기를 이끌고 있는 이옥원 KB금융공익재단 사무국장이 있다.

언론계에서는 중앙일보에서 시작해 아시아 경제 사장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에너지 계열 민간기업의 CEO로 자리를 옮겨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이세정 OLC 수석부회장도 1기의 핵심 멤버다.

동아일보 출신의 김상영 CJ 고문,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이종재 전 이투데이 사장, 박학용 문화일보 논설위원, 권석천 JTBC 보도국장, 박유한 KBS 워싱턴 특파원 등이 있다.

2기 15년을 이어온 끈끈한 우애

2002년 9월에 입학한 1기보다 6개월 늦게 2003년 3월에 입학한 2기도 OLP의 길을 닦은 초기 멤버다.

2기는 기수회장인 최병원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부회장이 올해부터 이끌고 있는데 최 부회장은 1999년 IT전문 창업투자회사인 '스틱IT투자'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초창기 멤버로 시작했다.

스틱은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해 현재는 벤처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투자하는 대형 사모투자펀드(PEF)가 됐고 운용자산 규모는 역

외펀드 포함 약 3조1500억 원으로 국내 등록된 사모펀드사에서 5번째다. 또 전임 이미경 회장은 2012년부터 2기를 이끌면서 인천지역 여성경제인연합회 임원으로 일해 온 인천지역 열렬 여성기업인이다. 건설부동산 광고홍보대행업을 하는 케이스퀘어피알 대표인 김격수 원우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기수 간사를 맡고 있다.

삼성 미래전략실 출신의 하주호 신라호텔 전무와 최근 KT인사에서 신입 CR부문에 임명된 박대수 전무가 활약중이고 2기 고문인 내일신문 정세용 주필과 한겨레신문에서 두산 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김병수 (주)두산 지주부문 커뮤니케이션실 사장과 변재운 쿠팡 대표가 2기 언론인들 가운데 고참에 속한다.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경제 권구찬 논설위원과 총무업무를 병행 중인 동아일보 황재성 부장 또 선우정 조선일보 사회부장 겸 앵커 출신의 정운갑 MBN 국장도 있다.

경제인으로는 초대회장을 역임한 박소양 선진테크사장과 3대 회장인 김재중 에스피치 사장 등도 원우활동에 적극적이다. 또 2기는 매년 상하반기에 골프행사를 가지고 분기별로는 정기모임을 개최하는 등 졸업 이후에도 15년 동안 끈끈한 우애를 다지고 있다.

2기 OLC 회장만 두 명을 배출했다

3기에서는 OLC 회장만 2명을 배출했다. 1976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대 인력파견 업체 삼구아이앤씨를 36년째 이끄는 구자관 회장은 지난해까지 제 6대 OLC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내 인재 아웃소싱시장의 개척자로 통한다. 마리오아울렛의 전신인 마리오상사를 1980년 설립한 뒤 1983년 여성니트 정장 까르뜨니트를 론칭했고 2001년에는 마리오아울렛 대표이사로 거듭난 홍성열 회장을 빼고 OLP를 말하기는 어렵다. 홍회장은 제 2대 OLC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 유니에스 이용훈 회장과 세종텔레콤 김형진 회장도 2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OLP 핵심 멤버들이다.

언론계에서는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겸 논설위원 맡고 있는 김

OLP 4기에서는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류성걸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간사를

거쳐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구 동갑 의원으로 재직했다.

광기 원우와 동아일보 부국장을 거쳐 지금은 펜앤드마이크 전무이사인 권순환 원우, 문성웅 논설위원,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흥은주 전 MBC 논설실장 등 쟁쟁한 언론인을 배출했다.

또 이동웅 경총 전무와 지난해까지 OLC 사무총장을 역임한 유병인 LOCKTON 전무 등도 빼놓을 수 없는 3기 원우들이다.

4기 국회의원으로 배출했다

OLP 4기에서는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류성걸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거쳐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구 동갑 의원으로 재직했다.

또 주철수 원우는 현재 신한은행 부행장으로 재직 중이며 선박금융업 등을 하는 한유그룹 박기흥 회장도 역시 4기로 기수회장을 역임했다. 언론계에서는 머니투데이그룹 산하 통신사인 뉴스1 사장인 이백규 원우와 김병직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광노필 한겨레 신문 부국장, 박홍신 매일경제 부국장 등이 있고 SBS에서 자리를 옮겨 TV조선 부국장으로 재직중인 신동욱 원우도 있다.

법무법인 광장 고원석 변호사가 기수회장으로, 엘엔케이로직코리아 남택원 대표가 기수간사로 일하고 있다.

5기 우리는 장관을 냈다

4기가 국회의원을 배출했다면 5기는 장관급 관료를 배출했다. 5기의 신제윤 원우는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으로 2년간 재직하고 국제재금세탁기구의 의장을 거친 경제전문가이다. 재계에서는 LG전자 부사장을 거쳐 산업안전협회장을 지낸 김영기 원우와 양병만 휴비즈넷 대표, 장영석 CJ 상무, 박강석 전 우리은행 대치역 지점장 등이 있고 언론계에는 김영수 디지털조선일보 대표와 김승동 전 CBS 상무와 박현동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황희만 전 울산MBC 사장 등이 있다.

6기 장관, 5기만 배출한 것 아니다

6기의 이석준 원우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등 차관 2번에 이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까지 올라 관가에서 OLP를 빛냈다. 장덕생 한국화랑협회 사무총장은 기수회장을, 송민규 신한은행 구리출장소장이 기수간사를 맡고 있으며 홍보맨들 가운데는 조중권 (주)LG 상무가 6기 원우이다. 언론계에는 남궁덕 이데일리 상무와 강홍식 YTN보도국장, 안찬수 내일신문 편집국장, 김광현 동아일보 논설위원, 현경숙 연합뉴스 글로벌 코리아센터 본부장 겸 한민족 사업부장, 홍승일 중앙일보디자인 대표가 있다.

7기 법조계가 강하다

OLP 7기는 김병희 희성&H 회장, 권영욱 두비컴 회장에 이어 홍석범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현재 기수회장을 맡고 있다. 김근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과 남기섭 전 수출입은행 전무, 이광준 전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현역시절 이름을 날렸다.

7기 언론인들 가운데는 오창규 데이터뉴스 대표, 곽태현 서울신문 상무, 이광희 조선일보 AD본부장과 황선욱 YTN 센터장, 고철중 SBS 국장 등이 맹활약중이다.

또 흥병기 중앙일보 선데이국 선임기자과 이용용 국민일보 이사, 유석조 KBS 방콕 특파원과 이주승 MBC 경제부장 등이 있다.

법조인으로 OLC 사무총장 및 감사를 역임한 이훈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있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인 홍석범 원우가 기수회장을, 신한은행 마포 지점장인 최성호 원우는 간사를 맡고 있다.

8기 국회의원만 2명 배출했다

8기의 장재진 회장은 국내 실험동물업계의 독보적 기업인 코스피 상장사 (주)오리엔트바이오를 경영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한눈 팔지 않고 광고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광고인이자 광고계의 산증

인이 윤석구 부회장도 8기다. 또 김규형 삼성화재 상무와 장윤경 (주) 지아이티 대표 등이 활약했고 김홍익 전 OLC 사무총장이 8기이며 최원목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민주당 강남(갑)위원장인 김성곤 원우, 언론인을 거쳐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홍지만 원우 등 국회의원으로 2명 배출했다.

언론계에서는 이정재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이종태 국제신문 상무 등이 8기 멤버이고 매경 논설위원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를 역임한 이동주 원우가 8기이다.

9기 현직 차관도 있다

OLP 9기는 현직 차관을 배출했다. 고형권 원우가 그 주인공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 초대 1차관으로 재직 중이다.

재계에서는 이윤성 (주)알파코 대표와 김범성 SPC 전무가 활약중이며 송문성 준서예건 대표와 이민성 성우애드컴 대표, 고준호 노블카운티 대표도 9기의 멤버다. 또 판사 출신의 이윤식 김·장 변호사와 검사 출신 구자희 변호사도 있다. 언론계에서는 중앙일보를 거쳐 삼성언론재단 상임이사로서 재직 중인 심상복 원우와 민병오 미디어펜 편집국장, 박상용 KBS사회부장 등이 있다.

10기 언론사 대표만 2명 배출했다

OLP 10기는 언론계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영무 원우가 한겨레신문 사장을 역임했고 박동석 원우는 아시아경제TV 대표와 뉴스토마토 대표를 역임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아이뉴스24 마케팅 디렉터 전략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또 현직에서는 안미현 원우가 서울신문 부국장, 배국인 원우는 동아일보 산업부장을 역임중이며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인 최우규 원우도 경향신문 출신의 전직 언론인이다.

또 언론계 출신으로 경향신문에서 CJ로 자리를 옮긴 정길근 원우는 CJ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뷰애드 강성익 대표가 기수회장을, (주)리더스 디자인 최선호 대표는 기수 간사를 맡고 있다.

11기 언론계가 강하다

11기도 언론계가 강한 기수로 볼 수 있다. 현재 기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익수 원우는 세계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지금은 데일리안 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이홍열 전 YTN 상무와 류현성 연합뉴스 편

집국장, 이현상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활약 중이다. SBS 김명진 원우는 LA 특파원을 지냈고 조선일보 김덕한 원우는 현재 뉴욕특파원으로 재직 중이다.

재계에서는 한화그룹 커뮤니케이션팀 상무인 강호균 원우가 11기이고 조훈 KT 엠하우스 대표와 장철호 PR인사이트 대표, 소성민 소노미디어 대표, 강주엽 엔씨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활약 중이며 대치동 최고의 입시컨설팅 기관인 '거인의 어깨' 김형일 대표와 홍일점인 (주)정주 정은주 대표도 모두 11기이다. 또 오석준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와 최해중 변호사가 법조계의 11기 동기들이며 김승재, 류근원, 박시현, 박재순, 신윤선, 오원정, 정재식, 조진일 원우 등도 동기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기 현재 OLC를 이끈다

OLP 12기는 2017년 12월 정기총회에서 OLC 회장에 선임된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끌고 박연대 경도애비뉴 대표가 OLC 사무총장으로 보좌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12기회장인 김효준 원우가 하나원마켓 대표, 간사장인 노경래 원우가 휴먼멘토링 대표, 최병관 원우가 휴스트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홍보분야에서는 SK C&C 고창국 상무, 동서식품 안경호 실장, 미래에셋 이기동 본부장, 효성 이정원 상무 등이 있다.

언론계에서는 김익진 YTN 본부장과 송의달 조선경제아이 대표,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김석 경향신문 오피니언 팀장 등이 활약 중이며 국방부 최초의 여성 대변인이 된 최현수 원우도 12기이다.

또 IMF 상임이사인 최희남 원우와 한국신용정보원장인 민성기 원



우,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추일환 변호사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이다.

13기 정관계가 강하다

13기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의 신경민 의원을 배출했고 관가에서는 김대식 주 카자흐스탄대사와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원우이다. 재계에서는 정관영 듀오백코리아 대표, 왕태욱 전 신한은행 부회장, 서민우 전 KT 상무, 주철범 한화케미칼 상무, 두산 그룹 출신의 신동규 스트래티지 샐러드 부사장이 있고 서수민 (주)DKC 대표가 기수회장을, 노상기 공상디자인 대표가 기수간사로 13기를 이끌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한국일보 이우식 고문과 문화일보 예진수 부장, 신경렬 SBS 미디어홀딩스 대표 등이 있다.

14기 남매원우도 나왔다

이덕수 (주)타임즈코어 회장과, 기수간사이면서 11기 김형일 원우의 동생이기도 한 김경아 JWLI사가 이끄는 14기는 김윤호 AJ인 베스트먼트파트너스 대표이사와 김호범 키움증권 상무, 이익수 하나금융지주 상무 등 금융인이 돋보이는 가운데 윤종진 원우가 최근 KT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또 언론계에는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오동현 SBS CNBC 본부장, 오동희 머니투데이 부장, 권혁주 중앙일보 부장등이 있다. 14기는 특히 매달 교박교박 기수모임을 갖는 등 결속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기 소리 없이 강하다

김명일 경안전선 회장이 기수회장으로 김종술 한화투자증권 브랜드&커뮤니케이션 팀장이 기수간사로 이끌고 있는 15기에는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과 구도호 선풍토건 대표, 신경훈 미디어스 코리아 회장, 유영석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철기 KT 상무가 있다. 언론계에는 조용만 비즈니스워치 대표와 김장하 YTN 편성제작 국장, 조중식 조선일보 국제부장, 강익영 연합뉴스TV 사회부장, 이민종 문화일보 부장과 이창구 서울신문 베이징 특파원등이 동기이다.

16기 기수 조직이 치밀하다

16기는 손영득 한국고용정보 대표와 SBS 양윤석 국장이 기수회장과 간사로 이끌고 있으며 동구제약 조용준 대표가 기수 수석

부회장, 현대C&R 민원표 본부장과 최수호 원우, 변호사인 오자성 원우가 기수 부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기수활동이 활발하다.

재계에는 KOTRA 김두영 본부장과 우리은행 김창연 본부장, SPC 백승천 상무, 두산그룹 최재준 상무, aT 심정근 센터장, 한국은행 이명종 본부장, 한화그룹 박종국 상무 등이 활약하고 있다.

또 언론계에서는 CBS 구병수 선임기자, MBN 위정환 국차장, 머니투데이 문성일 부국장, 한국일보 정영오 부장, 한국경제 김후진 부장 등이 있다.

17기 남매가 한 기수에 있다

비즈테크놀러지 부회장인 정찬모 원우가 기수회장으로 삼성물산 부장인 이상현 원우가 간사로 이끌고 있는 17기에는 특이하게 남매가 동반 입학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직업개발원 백성욱 대표와 코리아잡스쿨 백미소 대표가 그들이다.

정형중 현대차 정책개발실 상무와 손병관 신한카드 본부장, 김영식 한화 커뮤니케이션 그룹 상무, 진병권 KT 상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부상준 원우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서홍기 원우는 수원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다. 언론계에서는 김경석 연합뉴스 국장과 박용찬 MBC부국장, 자동차기자협회장이기도 한 홍대선 한겨레신문 부장도 17기이다.

18기 조용히 잘 모인다

지난 2015년 9월 업계 최초로 '택시예약제'를 도입한 대한상운 권오승 회장이 18기다. 권 대표는 벤츠 스프린터와 K9, 렉서스 등

OPINION LEADERS PROGRAM





언론계에서는 박민수 전 뉴시스 편집국장과
김기동 세계일보 산업부장이 있고, KBS 경제팀 차장인 김원장
원우는 '성공예감' 앵커로 활약하고 있다.

의 고급대형 택시부터 스타렉스 등 대형 택시까지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다. 또 권용석 대상그룹 상무와 박성준 한국은행 기획협력국장, 황국환 수출입은행 청주지점장 등이 활약했고 언론계에서는 박민수 전 뉴시스 편집국장과 김기동 세계일보 산업부장이 있고, KBS 경제팀 차장인 김원장 원우는 '성공예감' 앵커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18기는 박필준 화일약품 대표가 기수회장으로, 성환두 LG화학 상무가 간사로 기수를 이끌고 있다.

19기 금융계가 강하다

현대글로벌모터스 배성윤 회장이 기수회장을 장준철 넵튠소프트 대표가 기수 간사로 이끌고 있는 OLP 19기는 금융계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허인 원우는 지난해 11월 KB국민은행장에 취임했고 최근 우리 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로 취임한 권광석 전 우리은행 부행장과 역시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된 광대한 원우, 정순영 수출입은행 해양프로젝트금융부장 등이 있다. 언론계에서는 김철우 KBS 뉴욕특파원, 전계현 파이낸셜뉴스 국제업무팀장 등이 19기이다.

20기 금융계, 우리도 있다

우리은행 내 대표적인 상고출신 뱅커로 최근 부동산 금융그룹 담당 부행장에 임명된 이창재 원우가 20기이고 조종현 수출입은행 공보팀장 등 금융계 인사들이 눈에 띈다. 또 이동주 LG하우시스 대외협력 담당과 송충섭 LG화학 부장 등 LG 계열사 인사들과 배균호 두산 커뮤니케이션실 부장 등 대기업 홍보맨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언론계에서는 노종섭 아시아 경제 편집국장과 이재웅 CBS산업부장, 최혁재 MBC 부장 등이 있는 20기는 박설웅 SD생명공학 대표가 기수회장으로 유재중 한국고용정보 부사장이 간사로 이끌고 있다.

21기 OLC로는 우리가 막내다

가장 최근 OLC에 합류한 OLP 21기는 최신 기수답게 현직에서 활약 중인 원우들이 많다. 김동욱 경충 홍보본부장과 김우진 CJ 커뮤니케이션실 상무와 김지섭 삼양홀딩스 재경실 상무, 김현태 KGC인삼공사 상무와 김기완 신용보증기금 대화협력실 팀장 등이 있다. 언론계에서도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강태욱 YTN 경제부 부장, 김현수 서울경제 증권부 부장과 강기택 머니투데이 경제부장 등 현직 데스크들이 많다. 21기는 홍재식 한국코아비스 사장이 기수회장으로, 이윤환 한화커뮤니케이션그룹 부장이 기수간사로 이끌고 있다.

22기 가을에 입학한다

2002년 9월 27일 OLP 1기를 시작을 문을 연 OLP는 11기까지는 봄학기과 가을학기 두 기수를, 12기부터는 가을학기에 한 기수씩 배출하고 있으며 22기가 오는 9월 입학하게 된다. OLP의 역사가 16년을 넘기면서 초기 원우들 가운데는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있다. 강대원 원우와 김윤호 원우, 우종천 원우 등 1기 원우 3분과 2기 배준한 원우, 7기 김진택 원우, 8기 고일욱 원우, 10기 강기수 원우, 14기 공종식 원우, 17기 박성업 원우 등 9명이다. **OLP**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로봇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에

두산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잘 이해하며

가까이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창조적인 일에 집중하며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

두산이 생각하는 로봇의 미래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토크센서 기반의 탁월한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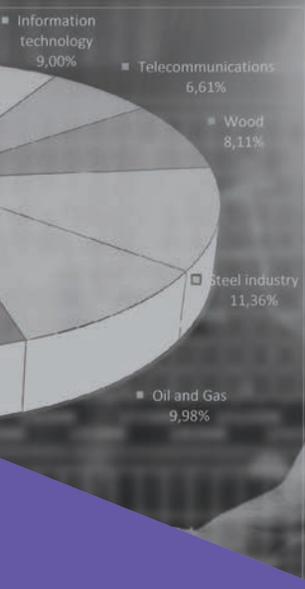
스마트기와 같은 손쉬운 사용성

두산은 사람과의 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의
개발로 인류의 가능성을 넓히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www.doosanrobotics.com



M1013 기반중량 10kg, 작업반경 1.3m의 기본 모델로서 다양한 공정 적용 가능



OLP

OPINION
LEADERS
PROGRAM

OLP가 보는 세상

2018년 이렇게 바꿉니다

이철행 OLP 10기

가상화폐, 넌 도대체 뭐냐

박상주 OLP 9기

내 아이 의사 만들기!

김형일 OLP 11기

2018년 이렇게 바꿉니다.

주요 경제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239개 주요 제도가 변경된다.

이 중 가계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세제, 근로관계, 임금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
클.
이철행
OLP10기

소득재분배 명분하에 현행 6단계 소득세 구간이 7단계로 늘어나며, 최고세율 42% 구간이 신설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40%로 인상되며, 5억 원 이상은 42%로 인상된다.

01
세제

소득재분배 명분하에 현행 6단계 소득세 구간이 7단계로 늘어나며, 최고세율 42% 구간이 신설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40%로 인상되며, 5억 원 이상은 42%로 인상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누진과세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 단일세율이었으나, 3억 원이하는 기존 20%로 동일하나 3억 원 초과분은 25%로 양도세를 내야한다.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9년부터 시행한다.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서울시 전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4월 1일부터 중과된다. 2주택 보유자가 조정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가산된다. 또한 중과대상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하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상속소득세 성실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18년 5% 19년 3%로 축소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도 현행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강화된다.

소위 기업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 관계 법인과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특수 관계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됐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 관계법인과 매출액이 1천억 원 초과한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 집단 간 교차·삼각거래 등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특수 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법도 강화된다.

대기업 법인세도 인상된다. 과세표준 200억에서 3천억 원이하 구간은 현행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오른다.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가 강화된다. 현행 영위기간 기준이 10년(200억 원), 15년



(300억 원), 20년(500억 원)에서 10년(200억 원), 20년(300억 원), 30년(500억 원)으로 변경된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도 강화된다. 현행 코스피(1%, 25억 원), 코스닥(2%, 20억 원), 코넥스(4%, 10억 원) 기준이 올 4월부터 코스피(1%, 15억 원), 코스닥(2%, 15억 원), 코넥스(4%,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19년 4월부터는 코스피(1%, 10억 원), 코스닥(2%, 10억 원), 코넥스(4%, 10억 원)으로 더욱 강화된다.

관세청장에게 통보되는 해외카드 사용내역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제출기준도 단축된다. 현재 물품구매액과 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천 달러 이상인 경우 매분기 다음 달 말일에 보고했다. 금년 2월부터는 물품구매액 또는 해외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 보고된다. 해외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공항 입국장에서 바로 단속된다.

02 임금 금리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다. 정부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올 3월 20일부터는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중 단순 노무근로자, 감시/단속직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수습기간일지라도 1시간 당 7,530원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액 상한액은 6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인 54,216원으로 인상됐다.

사병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외부 지원 없이 병영 생활이 가능하도록 병사 급여가 대폭 오른다. 현재 163,000(이병)~216,000원(병장)을 지급받던 병사 급여가 306,100(이병)~405,700원(병장)으로 인상된다.

사인 간 일반금전대차 또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법정 최고이자율은 현행 각각 25%, 29.9%였으나, 서민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월 8일부터 모두 연 24%로 인하된다. 개정된 법정최고금리는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나, 5월 29일부터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03 노사 관계

1년 미만의 재직근로자가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해 발생한 15일 연차에서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휴가를 부여하되 다음해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차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월 출근한 신입사원은 1년차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는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나, 5월 29일부터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서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이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지금까지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1월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OLP

- 2018년 주요 제도 변화 요약 -

	Before	After	시행일
소득세 최고 세율 조정	-1.5억원초과~5억원: 38% -5억원 초과: 40%	-1.5억원초과~3억원: 38% -3억원초과~5억원: 40% -5억원초과: 42%	-18.1.1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20%	-3억원이하: 20% -3억원 초과: 25%	-18.1.1 [중소기업19.1.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	-서울, 경기 7곳, 부산 7구, 세종시 2주택 보유자 양도세 10%p 가산, 3주택 이상 20%p 가산 -양도세 증가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18.4.1 -18.4.1 -18.1.1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산출세액의 7% 공제	-산출세액의 5% -산출세액의 3%	-18.1.1 -19.1.1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채납액 3억원	-채납액 2억원	-18.1.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기업]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주식보유비율-10%)	-[대기업]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	-18.1.1
법인세 인상	-200억원 초과: 22%	-200억원~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18.1.1
중소기업/3천억미만 중견기업 기업상속 공제	기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 -10년이상 200억원 -15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500억원	기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 -10년이상 200억원 -20년이상 3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	-18.1.1
대주주 범위 확대	-코스피: 1%, 25억원 -코스닥: 2%, 20억원 -코넥스: 4%, 10억원	-코스피: 1%, 15억원 -코스닥: 2%, 15억원 -코넥스: 4%, 10억원	-18.4.1
해외카드 사용인출내역 제출 대상 확대	-물품구입액+인출금액 분기별 총액 5천달러 이상	-물품구입액+인출금액 건당6백달러 이상	-18.2
최저임금액 인상	-시급 6,470원	-시급 7,530원	-18.1.1
실업급여 상한액	-1일 상한액 5만원	-1일 상한액 6만원	-18.1.1
사병 급여 인상	-이병: 163,000원 -일병: 176,400원 -상병: 195,000원 -병장: 216,000원	-이병: 306,100원 -일병: 331,300원 -상병: 366,200원 -병장: 405,700원	-18.1
법정 최고금리 인하	-사인간: 연 25% -대부업자: 연 27.9%	-사인간: 연 24% -대부업자: 연 24%	-18.2.8
신입사원 연차	-다음 해 15일 연차에서 사용기간 공제	-1년차 1개월에 1일 최대 11일 부여, 다음해 연차에서 공제 안함	-18.5.29
육아휴직자 연차	-비출근으로 계산하여 연차일 수 산정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일수 산정	-18.5.29
난임치료 휴가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이내 휴가 부여,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18.5.29
출퇴근 산재인정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18.1

가상화폐, 넌 도대체 뭐냐?

디지털시대 신개념 화폐인가, 또 다른 거품인가



—
클.
박상주
OLP 9기
뉴시스 국제부 전문위원

Bit Coin



슬직한 고백 한 가지. 요즘 필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가상화폐(암호화폐) 기사를 써대고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점이다. 도대체 실체도 없는 가상의 물건을 사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수백 조 원씩 쏟아붓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가격 등락 폭이 수십 %나 되는 물건이 어떻게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물건을 지불 수단으로 채택한다면 도대체 그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물가가 하루 수십 %, 연간 수천 %씩 널뛰기를 할 것 아닌가.

동서양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도나도 가상화폐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해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가 투자금을 잃은 우리나라 20대 대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마저 발생했다. 가상화폐의 무엇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먼저 가상화폐의 기본적인 개념과 간단한 역사부터 정리를 해보자.

가상화폐는 기존 통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실물이 없기 때문에 발행비용이 들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므로 유통 비용도 들지 않는다.

또한 가상화폐의 유통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까지 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록체인이란 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기록

을 보관한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 정보를 특정 금융 회사의 서버에만 쌓아놓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컴퓨터에 똑같이 저장된다. 신규 거래가 일어나면 각 참여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장부 자체가 인터넷 상에 공유돼 있고 수시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최근 일본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해 460억 엔(약 4517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넴(NEM, 뉴이코노미무브먼트)'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이는 가상화폐 자체가 해킹당한 게 아니다. 거래사이트가 해킹을 당한 것이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시점은 미국 금융위기의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기 시작하던 때였다. 2008년 8월 '비트코인(bitcoin.org)'이라는 도메인이 온라인에 등장했다.

이어 그해 10월 31일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인물이 '비트코인: P2P 전자 현금 체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개한다. 실물이 없는 가상화폐의 개념을 처음 세상에 알린 것이다.

이듬해 1월 3일 드디어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세상에 던져졌다. 비트코인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암호를 풀어야 한다. 그 암호를 푸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표현한다. 가상화폐 채굴업자들은 암호를 풀기 위해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한다. 가상화폐 채굴기들은 중앙처리장치(CPU)보다 연산 능력이 뛰어난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갖추고 있다. GPU는 그 이름처럼 그래픽, 즉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논리 회로를 갖추고 있다.





2월 초 현재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중 80% 정도인 1680여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미 세계 각국의 ‘광부’들에 의해 채굴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존 제도권 시장은 이런 가상화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미국 월가에서는 가상화폐를 이미 정식 투자 상품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는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월가의 대형투자은행들은 가상화폐 전담 투자팀을 꾸리고 있다.

제도 금융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특히 IMF가 자체 가상화폐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 연차총회에 참석 중이던 라가르드 총재는 CNBC뉴스와의 페이스북 라이브 인터뷰에서 “이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금융당국들이 디지털 가상 화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다. 우리는(기존 금융 서비스 산업의) 대규모의 붕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새로운 금융 기술들이 금융서비스와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그런데도 각국의 금융당국들은 이를 백안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심지어 IMF가 자체의 가상화폐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제3의 세계화페 역할을 하고 있는 IMF의 특별인출권(SDR)이 가상화폐와 유사한 기술을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DR은 국제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IMF의 기본 자산인 금과 달러를 보완하는 예비자산 역할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이던 기존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이들도 있다. 세계적 종합금융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이날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는 관심이 없다”면서도 “블록체인은 진짜”라고 강조했다.

다이먼 CEO는 그러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a fraud)”로 규정했었다. 다이먼 CEO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최근의 비트코인 열풍을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행 하던 튜립 투자 거품에 비유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종말이 좋지 않을 것이다. 결국 폭발하고 말 것이다. 그건 사기다. 튜립 구근(알뿌리)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만일 JP모건 직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한다면 “두 가지 이유로 즉각 그들을 해고할 것이다. 우선 그건 우리 규정 위반이다. 그리고 명정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위험한 짓”이라고 말했다.

최근 비트코인 열풍을 400년 전 네덜란드의 튜립 투자 거품에 비유한 것이다.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명품 튜립’에 대한 투자 광풍이 불면서 튜립의 구근이 집값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튜립 가격이 3년간(1634~1637년) 5900%나 올랐다. 그러나 튜립 투자 거품이 빠지면서 경제공황으로 이어졌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아직은 경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은 결제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가치저장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말했다.

앤드루 베일리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청장은 지난해 BBC방송의 ‘뉴스 나이트’에 출연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이 안전하지 않은 투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가상화폐에 끼어 있는 거품이 ‘닷컴 버블’이나 ‘튜립 버블’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경고를 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천문학적 규모로 오르면서 “거품의 영역(bubble territory)”으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이용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치의 이전 측면에서도 기존 통화를 대체하기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체결하는데 최대 10일이 걸린다는 점과 거래사이트에 따라 큰 폭의 가격차가 난다는 점 역시 비트코인의 단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말 동시간대에 일어난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거래소별로 최대 4000달러까지 차이가 났다.

가상화폐의 사행성과 거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국의 규제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내놓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거래소 및 플랫폼의 중국 접근을 차단했다. 중국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도 막겠다는 조치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17일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다.

한국도 가상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내놓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 1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 세탁 등의 금융 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서구권 국가들도 가상화폐에 대한 강경 규제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억 달러 규모의 ICO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들 중 하나인 비트피넥스(Bitfinex)와 가상화폐 거래용 코인을 생산하는 스타트업 테더(Tether)를 비트코인 가격조작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각국의 동시 다발적인 규제 강화에 가상화폐들은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격인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순 2만 달러를 넘나들며 치솟다가 불과 한 달 여 만인 2월 초 그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8000달러 대로 급전직하했다. 이런 움직임은 과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로 자리를 잡기 위한 진통일 것인지, 아니면 17세기 튜립거품처럼 꺼져버릴 한낱 거품에 불과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OLP





[2019학년도 대입은 전략이다]

내 아이 의사 만들기!

전국 의과대학 입시분석 총론편

‘김형일의 입시칼럼’ - ‘내 아이 의사만들기!’의 주제는 ‘2019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시분석 총론편’입니다. 전국에 소재해 있는 37개 의과대학에 도전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을 위해 현재 각 의과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과 준비과정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입시정보를 통해 체계적인 입시준비를 통해 목표 의과대학에 한발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클.
김형일

OLP 11기
거인의어깨
교육 연구소 대표



2019학년도 전국 37개 의과대학 입시분석



자연계 최고 선호도인 의과대학

전국 의과대학의 다양한 선발방식에 맞춘 지원전략

요즘 많은 학생들이 의과대학 진학을 위한 컨설팅을 받으러 온다. 취업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풍토가 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절정에 달해 있음을 느낀다.

의대 진학하기가 과거에 알던 막연한 내신 성적 잘 맞아서...수능성적 잘 맞아서...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수시전형 중 학생부교과전형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1.0~1.2등급의 최고의 내신관리를 꾸준히 하여야 하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1.5등급이내의 내신관리를 하면서 의학관련 비교과관리를 꾸준히 하여야 하며, 수시 논술전형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2.0등급 전후의 내신관리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 위한 수능공부와 더불어 까다로운 의대논술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시 특기자전형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학교내 비교과실적 뿐 만 아니라 학교외 비교과실적을 의대진학에 유리하게 꾸준히 준비하여야 하며,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일반전형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지원하려는 대학에 맞는 최고의 수능성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소재 의과대학들에서 선발인원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지역인재전형도 잘 활용하면 지방에 있는 학생이라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수능성적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에 따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으므로 수능성적만을 가지고 의대진학의 유일한 평가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수능성적이 잘 안 나와도 의과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길

이 생각 외로 많음을 명심하고 수험생 본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의대 입시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전형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입시 지원전략을 상세히 세우고 실천하느냐, 막연히 내신만 또는 수능만 하느냐에 따라 의과대학 진학결과는 전혀 예상 밖으로 전개 될 것이다.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총론

전년도인 2017년 수능 응시자수는 재학생 444,874명, 재수생(졸업생) 137,532명, 검정고시 등 기타 11,121명 등 총 593,527명이 응시하였다. 약 60만 명의 수험생이 매년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최근의 취업난과 맞물려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의과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최고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수시 경쟁률 또한 상당히 높고 정시 수능 합격자 성적 또한 상당히 높음을 인식하고 입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올해 2018년 즉 2019학년도 입시에서는 서남대의 폐지로 인해 총 49명의 신입생 선발이 타 대학으로 증원되어 선발되기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을 정리해보면 전국 37개 의과대학에서 총 2,835명(전년도 2,545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하는데, 수시에서 1,781명(전년도 1,581명), 정시에서 1,054명(전년도 964명)으로 수시에서 훨씬 더 많은 의과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와 같은 선발인원은 사회배려자전형, 농어촌전형 등 일반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는 정원의 기타전형 선발인원을 제외한 순수한 일반학생들이

전국 37개 의과대학 진학을 위한 올바른 수시, 정시 지원전략을 위해
여러 각도에서 세밀한 입시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지역별 구분을 기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의과대학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원할 수 있는 선발전형을 기준으로 하는 인원이다.

올해 2019학년도 전국 37개 의과대학 선발인원을 분석해보면 수시 선발인원이 1,781명으로 62.8%, 정시 선발인원은 1,054명으로 37.2%로 정시보다 수시에서 1.69배 많은 인원을 선발함으로 막연한 정시위주의 수능공부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가장 효율적인 의과대학 입시전략은 전국 37개 의과대학들이 다양한 선발방식으로 신입생들을 선발함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학하고자 하는 의과대학들을 중심으로 수시, 정시 중 각 전형별로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는 세심한 입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국 37개 의과대학 진학을 위한 올바른 수시, 정시 지원전략을 위해 여러 각도에서 세밀한 입시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지역별 구분을 기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의과대학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서울소재 9개 의과대학 선발인원 분석

서울소재 의과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로 총 9개 대학이 있다. 서울소재 9개 의과대학들은 수시전형 위주로 그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제일 많은 인원인 374명을 선발하는데 비하여, 지방소재 28개 의과대학들은 수능위주의 정시선발에서 760명을 선발하고, 수시전형 중에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675명을 선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서울소재 9개 의과대학을 지원할 것인가? 지방소재 28개 의과대학을 지원할 것인가?'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 중 우선순위를 두는 지원전략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소재 9개 의과대학에서는 수시 558명, 정시 295명으로 총 863명을 선발하는데, 수시선발 568명 중 학생부교과전형 16명, 학생부종합전형 374명, 논술전형 136명, 실기(특기자)전형 42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수능위주의 정시선발은 295명이다. 평소의 수능 모의고사성적에 따라 정시에 집중할 것인지, 수시에 집중할 것 인지를 정해야 하며, 수시에 집중할 때 어느 전형에 집중하는 것이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할 것인가에 따라 합격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도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 위주의 정시선발에서는 서울소재 의과대학에서 총 295명을 선발하는데, 대학마다 약간의 선발방식에서 차이는 있으나 크지 않고 가중치와 영어배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소재 9개 의과대학 정시 합격자 수능 평균 백분위 성적은 가톨릭대 98.9%, 경희대 98.3%, 서울대 99.91%, 이화여대 (인문) 98.5%, (자연) 97.5%, 한양대 97.92% 등으로 최소 97.5% 이상은 나와야 합격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의과대학에 대한 선호도에 의하여 수험생의 입장에서 좀 더 높은 수능성적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지방소재 28개 의과대학 선발인원 분석

지방소재 의과대학은 올해 폐교된 서남대를 제외하면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고신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부산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로 총 28개 대학이 있다. 지방소재 28개 의과대학에서는 수시 1,221명, 정시 760명으로 총 1,981명을 선발하는

데, 수시선발 1,221명 중 학생부교과전형으로 675명, 학생부종합전형으로 425명, 논술전형으로 118명을 선발하고 수능위주의 정시선발에서는 760명을 선발한다. 좀 더 상세히 분석해보면 서울소재 9개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지방소재 28개 의과대학도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수시전형 중에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인 675명을 선발하며, 요즘의 수시선발 대세인 학생부종합전형으로 425명을 선발하며, 논술전형으로 118명을 선발하고 특기자전형으로 3명을 선발한다. 정시에서 760명을 선발함으로써 서울소재 9개 의과대학 295명을 합한다면 정시에서는 전국 37개 의과대학에 총 1,055명을 선발한다.

수능 위주의 정시선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지방소재 28개 의과대학은 정시 합격자 수능 평균 백분위 성적은 가천대 98.5%, 건양대 96.6%, 계명대 96.9%, 단국대(천안) 97.7%, 영남대 96.6%, 을지대 96.9%, 인하대 97.0%, 충북대 96.9% 등으로 최소 96.6% 이상은 나와야 지방소재 의과대학 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 **OLP**

거인의어깨 교육연구소 홈페이지
www.estudycare.com



내일을 만드는 화학

지구에게도 인류에게도
깨끗한 에너지는 없을까
오늘에서 내일로 다시 미래로
끝없이 이어질 수는 없을까
무한한 생각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자
멈추지 않는
내일의 힘을 만들자



인류에게 필요한 차세대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솔루션**

LG화학은 에너지를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가 없는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OPINION
OLP Special
LEADERS
PROGRAM

2017 OLC 대상 및 송년의 밤

허원순 OLP 12기

2017 OLC 대상 수상자 인터뷰

김석 OLP 12기

2017 연합골프대회 참가기

김석 OLP 12기

OLC 산악회

박상주 OLP 9기

OLC 시네오페라

정지철 감독

21기 졸업 여행

강영구 OLP 21기



김
희원
OLP 12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우리는 하나! 파안대소 어깨동무로 서로를 밀어주면서!
함께 가면 더 멀리 간다고 했던가.



2017 OLC 대상 및 송년의 밤

‘정유년 닭의 해를 보내는 서강 OLC’

정유년 닭의 해를 보내는 서강 OLC 송년회가 2017년 12월 7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

늘 그랬듯, 한해를 보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새해를 맞으며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우의의 장이었다. 황금개의 해, 무술년 2018년은 그렇게 OLC 앞으로 장대하게 펼쳐졌다.

각계에서 중견의 ‘오피니언 리더’로 맹활약중인 OLC 회원은 어느 덧 1000명을 바라본다. 이런 외형적 성장, 양적 팽창을 바탕으로 OLC는 황금개의 해에 또 한 번 멋지게 질적 도약을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양적 팽창의 질적 성장이다.

연말 행사에서는 2018년 OLC의 비약 성장을 이끌어줄 새 리더도 추대됐다. 어진 안국약품(주) 대표이사 부회장(OLP 12기)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어 회장을 도우며 OLC의 굵은일도 마다하지 않을 신임 사무총장은 박연대 (주)경도애비뉴 대표(OLP 12기)가 맡게 됐다. OLP 동기여서 황금 콤비를 이룰 것이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OLC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구자관 회장과 유병인 사무총장은 우레 같은 박수 속에 2선으로 물러섰다. 물러나는 회장단에 더 많은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도 OLC의 전통이다.

새 회장단 구성과 OLC의 전통인 경영대상, 홍보대상, 언론대상 시상에 이어 초청 가수와 전문 개그맨들의 멋진 공연으로 이어졌다. 그랜드볼룸 남산 홀을 가득채운 OLC 회원들은 흥겨운 여흥과 함께 2018년 연말에는 더 향기로운 와인잔을 부딪치기로 무언으로 기약하며 한해를 마감했다.

아듀, 2017! 해피 2018! OLP

밀레니엄서울힐튼 그랜드볼룸(남산)



01



02



03



04



05 06





- 01 신구임 회장단과 모교 교수님들. 헤드테이블에서 그대로 단상에 올라 나란히 섰다. 왼쪽부터 이세정 언론분과 수석부회장, 김홍균 대학원장, 성대영 신임 수석부회장, 어진 신임회장, 구자관 전임회장, 남성일 교수, 홍성열 명예회장, 김병희 명예회장, 장재진 명예회장, 이흥재 감사.
- 02 물러나는 구자관 회장이 그동안의 소회를 전하는 고별사도중 몽클한듯 잠시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
- 03 OLC 경영대상을 받은 성대영 위더스제약(주) 대표가 구자관 회장과 나란히 포즈를 취했다.
- 04 신구 회장단이 OLC 발전을 기원하며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 05 OLC 홍보대상을 받은 안경호 동서식품 미래전략실장이 상패를 전한 구자관 회장과 나란히 포즈를 취했다.
- 06 어진 신임회장이 선출 소감과 함께 OLC 발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07 OLC의 최고 선배들. 연륜이 보이는 OLP 1기 테이블
- 08 OLC 만세! 끝은 언제나 화합, 단결, 우의, 발전을 외치면서...
- 09 유난히 더 다정한 동기들인가? 여성들이 많은 9기의 화합테이블.
- 10 축사에 나선 김홍균 대학원장
- 11 그간의 노고에 대해 OLC 전체 회원들의 뜻이 담긴 감사공로패를 받은 구자관 회장이 어진 신임회장과 나란히 섰다. 든든합니다!
- 12 물러나는 구자관 OLC 6대 회장과 유병인 사무총장. 정말 애쓰셨습니다!

경영부문수상자

“앞으로 사회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서강대를 빛내달라고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성대영 위더스제약 대표

Profile

2005년 1월부터 위더스제약 대표를 맡고 있는 성대영 대표는 2009년 1월부터는 센트럴병원 이사장도 겸하고 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한몽 경상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이사, 남서울대 겸임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일을 맡고 있다.

그가 13년 동안 운영한 위더스제약의 영업이익률은 24~25%에 이른다.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실적이다.

2017년 OLC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한 위더스제약 성대영 대표(OLP 17기)는 “OLC 대상은 대학 측과 동문회가 함께 선정하는 상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상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회국가산업단지 입주 의료법인 센트럴병원의 이사장이기도 한 성 대표는 특히 병원 경영 능력이 경영부문 대상 수상의 이유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은 공공산업이다. 이익이 나는 산업이 아니다. 의료보험 자체가 준세금 아니냐.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의료보험 수가를 올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의사도 아닌 내가 병원을 인수해서 정상화한 점이 평가를 받아상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제약부문 역시 실적이 좋다. 그가 13년 동안 운영한 위더스제약의 영업이익률은 24~25%에 이른다.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실적이다.

그는 “경쟁우위는 원가우위와 차별화전략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원가우위 전략이 실적에 특히 많이 기여한 것 같다”면서 “변혁적 리더십을 활용해서 원가절감에 적용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OLC와의 인연은 서강대 경제대학원에 다닌 것이 계기가 된다고 한다. 같은 공간에서 OLP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크게 관심은 없었다는 게 그의 얘기. 그런데 당시 남준우 경제대학원장이 “기왕에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아니냐. OLP 프로그램이 좋으니 들어와서 공부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추천해 수업을 듣게 됐다고 한다.

결과는 대만족. “다른 대학들의 최고경영자과정은 인적 네트워크만 제공할 뿐 지식 측면에서의 방향은 제시하지 않지만 서강대 OLP는 수업이 충실하게 이뤄져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준다”고 평가했다. 또 “입학 원우들이 대부분 40대로 원기왕성해 의욕이 다른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보다 훨씬 높은 것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성 대표는 올해도 할 일이 많다. 제약쪽에서는 2020년 기업공개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량신약 개발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병원쪽에서는 5월 중순에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재활요양병원을 증축 및 개원할 예정이다. 그는 “아직까지 종합병원 중에는 한 울타리 안에 치료 병원과 요양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시설을 마련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OLP**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고요.”



안미현 서울신문 부국장 겸 산업부장

Profile

OLC 언론대상을 받은 안미현 서울신문 부국장 겸 산업부장은 서울신문 경제부장, 금융부장 등 경제 관련 부서장을 두루 거쳤으며 논설위원도 지냈다. 2015년 ‘여자 보는 눈 바뀌야 국가경제 산다’ 시리즈로 여성가족부 주최 양성평등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금융 보는 눈 바뀌야 국가경제 산다’ ‘성장 보는 눈 바뀌야 국가경제 산다’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여기자협회 감사도 맡고 있다.

안 원우는 경제 분야에 여기자가 드물던 시절 지금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경제부처와 한국은행, 기업 등을 주로 출입했다.

2017년 언론 부문 OLC 대상을 수상한 안미현 서울신문 부국장 겸 산업부장(OLP 10기)은 큰 상을 받고도 말을 아꼈다. OLC 역사상 여성 대상 수상자가 나오기는 처음이다. 그럼에도 안 원우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그는 2017년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11월 30일 부친상을 당했다. OLC 송년회 및 대상 시상식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서였다. 건강하시던 아버지를 갑자기 잃고 시상식에 갈 수 없었다. 상을 치르고 출근한 첫 날 인사이동도 있었다.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에서 부국장 겸 산업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안 원우는 경제 분야에 여기자가 드물던 시절 지금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경제부처와 한국은행, 기업 등을 주로 출입했다. 2014년 OLC 언론분과 편집위원과 OLP 저널 편집장을 맡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부친상과 OLC 대상 수상으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안 원우는 “OLC 원우들과 선배 언론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면서 “지면으로나마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OLP**

2017  OLC
INTERVIEW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마 그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나 합니다.”



안경호 동서식품 실장

Profile

동서식품 마케팅 팀장을 거쳐 홍보실장을 지낸 안경호 동서식품 미래전략실장은 식품산업계 홍보·마케팅 분야의 베테랑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홍보위원장으로 언론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기도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나트륨 절감 운동본부 홍보분과 활동도 했다.

요즘의 화두로 ‘다양화’와 ‘다변화’를 꼽은 안 실장은 이를 위해 주위와 소통을 늘리려 한다며 특히 OLC를 통해 많은 정보교류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2017 OLC 홍보부문 대상을 수상한 안경호 동서식품 실장(OLP 12기)은 ‘팀 스피릿’을 자신의 수상 이유로 꼽았다.

“부족한 사람을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수상의 변을 시작한 안 실장은 직장생활 32년 가운데 절반이 마케팅, 절반이 홍보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관계중심 사회이고 정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라고 느꼈고 “단체생활을 할 때 생각을 늘 함께 공유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명칭인 ‘팀 스피릿’의 작명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단체정신’이라는 의미인데, 관계를 중심에 놓고 어울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식품산업협회 홍보위원장을 9년 정도 지냈는데 약 30개 정도의 회원사가 있고 각 회사별로 처한 입장이 다르고, 또 이를 상대해야 하는 언론사 역시 수십개가 넘는다”면서 “당연히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을 풀어낸 게 바로 ‘단체 정신’이라는 것. 그는 “재임 중에 회원사 홍보임원들과 언론사간에 소통을 많이 강조했다. ‘식구론’이 대표적이다”면서 “그 결과 희노애락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런 점이 반영돼 이번에 상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수분지족(守分知足)하고 부득탐승(不得探勝)하라’는 한자숙어를 좋아한다고 소개했다. ‘자신을 잘 알고, 남들과 다투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팀 스피릿’과 상통한다고 생각해서 항상 실천하려 한다는 게 그의 애기다. 실천이 쉽지 않다고 겸손해하면서…

“주위에서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상암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인 주홍 선배도 추천했다”라고 OLC와의 인연을 소개한 안 실장은 “OLP 교육 참가는 개인적으로 했던 걸 정 가운데 최고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교육내용도 좋았고, 업무현장에서의 유대감도 높여주는 등 좋은 기억만 있어 정 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전설의 3교시 수업과 이를 위해 고생한 이한식 교수, 김홍균 교수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난다고 했다.

요즘의 화두로 ‘다양화’와 ‘다변화’를 꼽은 안 실장은 이를 위해 주위와 소통을 늘리려 한다며 특히 OLC를 통해 많은 정보교류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OLP**

하나금융그룹

세계적인

자산관리명가

KEB 하나은행 하나골드클럽

세계가 인정한 명품 프라이빗 बैं킹 서비스를
KEB 하나은행에서 만나보세요



2017 연합골프대회



밝고 따뜻한 날이었다. 서강 OLC의 앞길에 늘 함께하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날.

‘제16회 서강 OLC 연합골프대회’가 열린 2017년 10월 27일, 3년째 가는 길은 앞선 두 해에 비해 훨씬 환하고 좋았다. 처음 연합골프대회에 참가한 2015년 10월 30일의 흥전은 너무 추웠다. 봄처럼 따뜻하던 한반도에 전 날부터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다. 겨울옷을 입고도 한참을 추위에 떨어야했다. 2016년에는 그렇게 춥지는 않았지만 아침까지 비가 부슬부슬 내려 행사가 제대로 열릴 지 걱정해야 했다.

하지만 2017년엔 모든 게 좋았다. 비도 오지 않았고, 춥지도 않았다. 행사가 열린 이천의 이날 기온은 아침 최저 8.3도, 낮 최고는 23.4도까지 올라갔다. 하늘이 OLC를 위해 미리 이 날을 준비해놓은 듯했다.

행사가 열린 장소는 2016년에 이어 사우스스프링스 CC였다. 108개의 벙커가 골퍼들의 번뇌하게 만든다는 바로 그곳이다. 하지만 반가운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

을 보내는데, 벙커 따위가 문제될 수 없었다. 오랜 만에 행사장에 모습을 보인 원우도 있었다. 10기의 임석 전임 회장이었다. 긴 시간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만큼 얼굴이 환했다. 아마도 OLC 원우들을 만나는 반가움 때문이었으리라.

날씨가 좋아서일까. 골프 코스에서는 원우들의 묘기가 쏟아졌다.

우선 좀처럼 나오지 않는 이글이 나왔다. 주인공은 8기의 윤철현 원우. 마운틴 코스 마지막홀에서 핀까지 135미터를 남기고 7번 아이언샷을 단번에 홀에 넣었다. 퍼팅 이글도 아니고, 진짜 이글이라고 말하는 샷 이글을 성공시킨 것이다. 홀인원을 한 사람은 3년 동안 운이 따른 다던데, 샷이글은 얼마 동안 운이 좋을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

대신 동반자의 다른 묘기를 봤다. 나의 동반자는 12기 동기인 노경래 원우와 21기의 홍재식 회장. 묘기를 본 곳은 이 골프장의 시그니처 홀인 레이크코스 8번홀이었다.



글
김석
OLP 12기
경향신문 산업부장

2 0 1 7
G O L F
TOURNAMENT





단풍이 곱게 물든 코스와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 아래 이어지는
원우들의 멋진 플레이, 모든 게 좋았다. 한 가지만 빼고, 이렇게 좋은 행사에
참가하는 원우들의 숫자가 계속 정체 상태라는 것이다.

그린 주위가 모두 물로 싸여있는 아일랜드홀. 해저드만 보면 오금이 저리는 나는 2016년 이곳에서 여지없이 볼을 물에 빠뜨렸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앞핀이라 짧은 채로 친 덕에 무사히 물을 건넜다. 그린에 못 미치기는 했지만, 노경래 원우의 샷은 당겨지는 바람에 그린 왼쪽의 벙커에 들어갔다. 티샷을 가장 잘한 사람은 홍재식 회장였다. 핀을 향해 곧장 날아간 볼은 홀에 들어갈 듯 스치더니 근처에 멈췄다. 아마 홀에서 2미터 거리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 홀의 주인공은 홍재식 회장이 아니었다. 홀 반대쪽에서 긴 거리 벙커샷을 날린 노경래 원우가 주인공이었다. 노경래 원우가 친 벙커샷은 모래와 함께 튀어오르더니 그린 위에 떨어졌다. 그린 위에서 한두 번 바운드된 볼은 홀쪽으로 향하는가 싶더니, 속도를 늦추면서도 계속 홀을 향했다. 그리고 “어~ 어~”를 연발하는 우리들에게 으스스대기라도 하듯 “땡그랑” 소리를 내며 홀로 들어갔다.

이럴수가! 나도 뭉가를 보여주겠다며 그린 밖에서 어프로치샷으로 홀을 노렸다.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보기, 홍재식 원우도 가깝게 붙이기는 했지만 옆경사가 너무 심했다. 퍼팅이 홀을 스치듯 외면하면서 파, 역시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 아는 게임이었다.

노경래 원우가 그렇게 멋진 벙커샷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나중에 식사하면서 들었다. 한성CC에서 프로골퍼 강욱순에게 배웠다고 한다. 한때 한국 프로골프를 대표하던 선수에게 배웠으니 샷이 남다를 수밖에. 옆에서 노경래 원우의 얘기를 듣던 12기 김효준 원우도 자신의 무용담을 얘기했다. 레이크코스 첫번째 파3 홀에서 깃대를 맞추고 50센티미터 옆에 붙는 샷을 날렸고, 후반에도 세컨드샷으로 깃대를 때렸다고 했다. 보기, 더블보기만 이어간 나는 들으면서 감탄밖에 할 일이 없었다.

시상식이 이어졌다. 양보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시상

식이었다. 먼저 메달리스트. 베스트 스코어를 기록한 원우는 75타의 유병인 사무총장이었지만 지난해 우승 수상을 이유로 18기 박필준 회장에게 양보했다. 마운틴 코스 5번홀에서 측정한 니어리스트도 양보가 이어졌다. 가장 가까운 2.2미터에 붙인 14기 최원준 원우가 다른 상을 받게 되면서 양보했고, 다음으로 2.3미터를 기록한 박필준 원우도 메달리스트를 수상하면서 양보했다. 결국 3미터를 기록한 12기 박연대 사무차장이 어부지리로 니어리스트 상을 받았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계산한 우승은 네트 70점을 기록한 정재식 교수가 차지했고, 준우승은 니어리스트를 양보한 최원준 원우에게 돌아갔다.

레이크코스 6번홀에서 측정한 롱기스트는 12기 이시봉 원우의 몫이었다. 250야드를 날려 235야드의 8기 장재진 명예회장과 230야드의 9기 이윤성 원우를 넉넉하게 앞섰다. 다버디상은 4개 이세정 수석부회장, 4년째 사회를 맡은 11기 강주엽 원우의 “실례지만 몇개 했어요”라는 질문에 이세정 원우는 “4개밖에 못했다”며 버디 욕심을 자랑했다. 다파상은 무려 14개의 파를 기록한 장재진 명예회장, 다보기상은 보기 13개의 10기 최선호 원우에게 돌아갔다. 12기 김수경 원우, 14기 김경아 원우, 18기 박필준 회장 사모님은 퀸즈상을 받았다.

단풍이 곱게 물든 코스와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 아래 이어지는 원우들의 멋진 플레이, 모든 게 좋았다. 한 가지만 빼고, 이렇게 좋은 행사에 참가하는 원우들의 숫자가 계속 정체 상태라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신입 회원들의 숫자는 50명, 연합골프대회의 참가 인원 역시 이에 비례해서 늘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참가한 3년 동안 이 숫자는 전혀 늘지 않았다. 골프대회 참가 원우들만을 대상으로 한 복권 추첨이라도 하면 참가자가 확 늘어날까? 아무튼 2018년에는 골프대회에 많이 많이 참가해주세요~. 아주 재미있어요~. OLP



안동 安東



—
글. 박상주
OLP 9기
뉴시스 국제부 전문위원

옛 시인의 찬탄 그대로, 굽어보면 천심녹수(千尋綠水)요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이었다. 맑은 강물이 마을을 휘감으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겹겹이 쌓인 산들이 열 길 티끌세상을 멀리하는 병풍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조 작가인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어부사’ 표현 그대로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라고 탈속을 선언할만한 절경이었다. 안동 나들이는 수백 년 전 조선으로의 시간 여행이자 세속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지난해 10월 28일 안동 나들이에 나섰다. 서강대 ‘오피니언 리더스 클럽(OLC) 추계 가족초청 안동역사 해설여행’에 함께 한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종가집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봉화군 유



곡리 닭실마을을 시작으로 청량산~농암종택~퇴계선생
태실~도산서원~국학 진흥원 등을 둘러보는 여정이었
다. 조선 정신문화의 요람을 둘러보는 일정이었다.

OLC 가족 40여 명을 태운 관광버스는 오전 7시 반
서울 양재시민회관을 출발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을 동반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청량한 가을 공기를
가르며 달린 버스는 11시 즈음 첫 목적지인 닭실마을에 도
착했다.

풍수지리를 모르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눈에 길
지임을 알아챌 수 있는 지세의 마을이었다. 닭실마을은
뒤편으로는 나지막한 산들을 병풍처럼 둘러치고, 앞쪽으
로는 넉넉한 시냇물이 마을을 멀찍이 감싼 채 유유히 흐
르고 있었다.

“마을 모양을 한 번 보세요. 황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른바 금계포란(金鷄抱卵)형의 마을이지요.
닭실마을이란 이름도 이런 마을의 지세에서 나온 것입니
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삼남지역의 4대 길지 중 한 곳으
로 꼽은 마을이지요.”

안동지역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 OLC 가족
여행에 동행을 한 김유원 문화해설사의 설명이었다. 풍수
지리상 마을 동쪽의 봉우리인 옥적봉(玉笛峰)은 수탑, 서
쪽 백운령(百雲嶺)은 암탉으로 풀이되고 있다.

닭실마을은 조선 중기 조선 성종에서 명종 년 간 문
신 관료를 지낸 충재 권벌(沖齋 權穰, 1478~1548)의 종
택을 중심으로 조성됐다. 기묘사화로 파직된 권벌이 외가
인 이곳으로 내려와 종택을 세운 것이다.



권벌의 종택은 경북 북부지방의 전통적인 양반집 형태인 ‘모’자형 구조를 하고 있었다. 당당한 솟을 대문과 널찍한 안마당이 안동 권씨 세도가의 위세를 웅변하고 있었다.

종택 끝자락에 날아갈 듯 날렵한 지붕 선을 한 정자와 별당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정자 앞에는 아담한 연못이 조성돼 있었다. 닭실마을의 백미인 청암정이었다. 울긋불긋 절정의 단풍나무들이 연못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한 폭의 수채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청암정과 별당을 잇는 작은 돌다리가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를 떠올리게 했다.

두 번째 행선지인 청량산은 그야말로 만산홍엽의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에 이름을 올리고, 경상북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2007년 3월엔 청량사 주변지역이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23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최고봉인 의상봉(870m)을 비롯해 보살봉과 금탑봉, 연화봉, 축융봉 등 줄줄이 이어진 12개의 암봉들이 줄줄이 절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풍대와 밀성대, 풍형대, 학소대 등 12개의 기암절벽들은 청량산이 자랑하는 명물들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일치기 일정상 청량산 산행은 할 수가 없었다. 먼발치에서 단풍으로 불타오르는 청량산의 아름다움을 일별 한 뒤 발길을 돌려야 했다. 산 입구의 음식점에서 안동 간고등어와 더덕, 산채 등 정갈한 토속 음식들과 동동주를 곁들인 점심을 하면서 청량산에 오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다.

세 번째 행선지인 농암종택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가 어떠했을 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풍경이었다. 분강을 끼고 들어선 농암종택과 별당인 애일당(愛日堂), 강변의 정자인 강각(江閣) 등은 한 마디로 강과 달과 배와 술과 시가 있는 풍경이었다.

벼슬에 큰 뜻이 없었던 농암은 32살 늦은 나이에 병과에 턱걸이로 급제했다. 사간원 정언에 오른 게 38살이었다. 농암은 정언에 오른지 3개월 만에 연산군에게 입바른 소리를 했다가 유배를 당했다.

다시 왕의 부름을 받아 42살에 영천 군수에 제수됐다. 충주 목사로 봉직하던 1512년 그는 하루라도 아껴 부모님 곁에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마을 뒤 영지산 기슭의 부내가 잘 보이는 너럭바위에 애일당을 지었다.

“명절마다 반드시 양친을 모시고 동생들과 더불어 때



때웃을 입고 술잔을 올려 기쁘게 해드리기를 이 집에서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연세가 더욱 많아지니 한편으로 기쁘면서 한편으로 슬픈 마음(喜懼之情)이 들지 않을 수 없어 집의 편액을 '애일'(愛日)이라 했다." - '애일당중신기'에서

청량산에서 마신 동동주의 취기 때문이었을까. 농암과 퇴계가 음풍농월하던 풍경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다.

“이윽고 날이 저물어 달빛에 물빛은 흐릿한 데, 분강한 가운데 ‘자리바위’에 촛불을 켜니 강물은 여기서 좌우로 나누어져서 흘렀다. 한 줄기는 내가 앉은 자리 겉으로 흐르고, 아래에 퇴계가 앉아 있었다. 내가 취하여 희극을 하는데, 술잔에 술을 부어 조그만 뗏목에 올려 흘러 보내니 경호(퇴계의 자)가 아래에서 웃으면서 받아 마시기를 왕복 서너 차례, 중거(황준량의 자)의 무리들이 이 정경을 보고 부러워했다.” - 농암집

이런 절경에 벗과 술, 시가 있다면 세상에 아쉬울 게 또 무엇이 있으랴. 퇴계 선생이 한사코 임금의 부름을 고사한 채 안동으로 낙향하려 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농암종택 다음 행선지인 도산서원의 풍경은 퇴계가 한사코 관직을 내려놓은 채 고향으로 내려오려 했던 까닭을 설명하고 있었다.

퇴계는 1527년(중종 22) 향시(鄕試)에서 진사시와 생원시 초시에 합격했다. 1534년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가 되면서 관계에 발을 들여놓는다.

퇴계는 을사사화 후 병약함을 구실로 모든 관직을 내놓는다. 1546년(명종 1) 고향인 낙동강 상류인 토계(兎溪)로 내려와 책 속에 파묻힌다. 이때에 토계를 퇴계(退溪)라 개칭하고,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

퇴계는 1552년 성균관대사성의 명을 받아 취임하였다. 1556년 홍문관부제학, 1558년 공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여러 차례 고사하였다. 1543년 이후 관직을 사퇴하였거나 임관에 응하지 않은 일이 20여 회에 이르렀다.

1560년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짓고 아호를 ‘도옹(陶翁)’이라 정했다. 이로부터 7년간 도산서당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과 독서, 수양, 저술에 전념했다.

도산서원은 낙동강을 굽어보는 아늑한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도산서원은 퇴계가 생전에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과 퇴계 사후에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지은 도산서원으로 크게 나뉜다.



안동 나들은 수백 년 전 조선인의
시간 여행이자 세속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도산서당은 3칸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남향 건물이다. 서쪽 1칸은 골방이 딸린 부엌이고, 중앙의 온돌방 1칸은 퇴계가 거처하던 완락재(玩樂齋)다. 동쪽의 대청 1칸은 마루로 된 암서헌(巖棲軒)이다.

퇴계는 서당의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 작은 연못을 만들었다. 거기에 연(蓮)을 심어 정우당이라고 칭했다. 또 그 동쪽에 몽천이란 샘을 만들었다. 샘 위의 산기슭에는 평평한 단을 쌓아 암서헌과 마주보게 했다. 그 위에 매화와 대나무, 소나무, 국화를 심어 절우사(節友社)라고 불렀다. ‘절개 있는 벗’이라는 뜻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을 천석고황(泉石膏肓)이라고 했던가. 한양의 부귀영화를 팽개친 채 칩첩산중에서 당하나 차려 놓고 은거하려 했던 퇴계의 천석고황을 새삼 이해할 수 있는 풍경이었다. 그리고 보니 퇴계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첫 구절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리오.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하리오.”

천석고황을 다스리면서 초야우생으로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게 아닐까. 낙동강 물줄기가 무심히 흐르고 있었다. OLP

The Marriage of Figaro



—
클.
정지철
OLC 시네오페라 강사
(사)김자경오페라단 예술총감독
NEW 오페라 페스티벌 제작총감독



피가로의 결혼 마지막 장면

피가로의 결혼

OPERA

요즘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형무소란 곳이 완전히 사람이 못살 곳은 아니구나. 범죄자들이 저 드라마를 보고 내 방구석보다 형무소가 더 좋겠다! 죄 짓고 감방갈까?!' 라는 생각을 하면 어쩔까 라는 하다하다 말도 안 되는 걱정까지 한다.

누가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통제받고 제어당하는 곳으로 들어가려 할까. 그 곳이 설령 5성급 호텔이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감시당하는 곳이라면 아무도 원하지 않겠지 하면서 또 혼자 안심(?)을 한다.(누가 볼까 겁난다 이런 모습)

이런 생각들을 하자 불현 듯 손가락 하나로 16년 동안 벽을 파신 달인이 한분 떠오른다.

그래 학창시절 보았던 영화였지. 제목이... 쇼생크 탈출.

그때 그 영화를 통해 보여졌던 감옥은 지금 드라마에서 나오는 달달하고 인간적인 곳이 아니었다. 부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악명 높은 쇼생크에 들어간 주인공 앤디는 감옥 안에 또 다른 약육강식의 세상을 보게 되고 먹이사슬 가장 아래쪽에서 벌일을 다 당하며 신음한다.

그러나 비상한 두뇌와 회계기술 덕분에 절대 권력인 소장에 눈에 들게 되고 그나마 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끝까지 탈출을 포기 하지 않던 그는 결국 손가락 하나로 쇼생크를 탈출한 유일한 인물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로 기억한다. 이 영화를 떠올리자 영화의 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앤디가 소장실에서 자신이 찾아낸 오페라 LP의 한 부분을 듣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어서 슬기롭게 감방생활을 하던 앤디 답지 않은 행동이 나온다. 그 오페라의 한 부분을 전 수용소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버린 것이다. 모두는 일을 멈추고 잠시 그 오페라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 또 다른



01 02



주인공 모건 프리먼이 “뭘 이탈리아 여자가 어찌고 뭘 노래인지 모르겠다. 암튼 나와 쇼생크에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 라고 함부로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당연히 그 곳의 절대 권력자인 소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리고 문이 잠긴 소장실 밖에서 앤디에게 어서 그것을 끄라고 명령한다. 소장 입장에서는 그 음악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고 앤디가 자신의 의지대로 함부로 행동한 것이 참을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라. 소장이 그것을 끄라고 했을 때 주저주저하면서 기계를 끄려던 앤디가 오히려 불륨을 올리면서 소장에게 지어보이는 그 표정과 미소를… 당연히 앤디는 독방신세가 된다. 이 영화의 감독 프랭크 다라본트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영화에서 귀한 필름을 낭비해가며 이 장면을 넣은 것일까? 그래 백번 양보해서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과 청량함 그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잠시나마의 자유를 위해서일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다라면 감독은 굳이 앤디가 레코드판을 꺼내면서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의 제목을 보여주진 않았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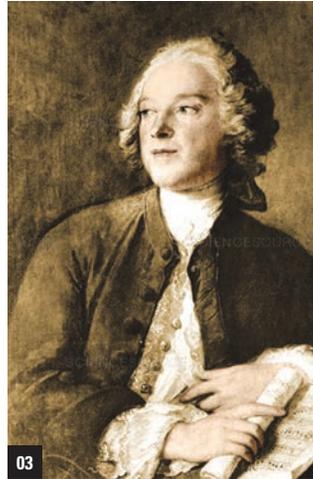
1789년 프랑스대혁명 전후의 프랑스는 절대왕정의 끝자락에서 가진 자들의 무책임한 수탈로 빈곤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다. 밭에서 쟁기질 하던 농부와 농노들보다 사실 귀족들에게 더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제3세력이라 불리는 상공업자와 부르주아(브르고뉴(성)안에 산다는 뜻)들이었다. 그들은 왜 똑같은 사람인데 저들은 이득을 독점하고 자신들은 그저 그들을 서브하면서 살아가는

냐에 깊은 불만을 느꼈던 것이다. 그들은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평민들을 가르친다. 태초에 인간은 평등하며 귀족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보마셰라는 극작가(이분은 직업이 많다. 시계공이면서 투자가 등)는 처음에는 귀족을 동경했다. 그래서 재주를 다해 돈을 모아 작위를 사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귀족이 되자 그는 귀족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둔하고 이기적인 집단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신이 만든 모든 것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한편의 연극을 썼다. 첫 번째 연극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그래도 모두가 좋아했다. 내용자체가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평민(피가로)인 이발사가 귀족(알마비바 백작)을 도와 악인(바르톨로)를 골탕 먹이는 내용이니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두 번째 연극 피가로의 결혼이 나왔을 때 프랑스의 국왕은 단 1회 만에 연극을 금지시킨다. 연극의 내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편에서 피가로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로지나와 결혼에 성공한 알마비바 백작은 피가로의 공을 인정해 동네이발사에서 일약 백작의 시종이 되어 궁 안에서 살게 한다. 세월이 지나고 알마비바 백작은 조강지처인 로지나를 놔두고 하필이면 로지나의 몸종이자 피가로의 약혼녀인 스잔나에게 음흉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백작의 집요한 구애에 스잔나는 모든 것을 피가로에게 알리고 피가रो와 스잔나 그리고 백작부인(로지나)은 힘과 꾀를 합쳐 백작을 골탕 먹이고 그에게 부끄러움을 알고 각성하게

보마셰라는 극작가는 처음에는 귀족을 동경했다. 그러나 그렇게도 되고 싶었던 귀족이 되자 그는 귀족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 01 피가로의 결혼 등장인물
- 02 백작 용서
- 03 보마르세
- 04 보마셰 피가로의 결혼



꿈 한다는 내용은 시종일관 도전적이었고 자극적이었다.

연극에서 피가로의 독백부분에 이런 말이 나온다. “백작, 대단한 위세와 권력을 가졌지. 하지만 그가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 노력한 게 뭐가 있지? 그저 좋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피가로가 무대에 서서 당시 박스석과 VIP석에 앉아 있는 왕과 귀족들에게 이 대사를 크게 외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피가로의 표정을 한번 보라 어디서 본 것 같은 표정 아닌가? 그렇다. 바로 볼륨을 올리던 앤디의 얼굴이다.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권력자 앞에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은 그 장면에서 보여준 것이었고 이 오페라를 아는 세상에 모든 이들과 교감하려 했던 것이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피가로의 결혼은 프랑스대 혁명의 시작점이었다.”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았어도 인류가 동서고금을 통틀어 간절히 원하는 용기와 자유를 향한 의지가 이 연극에 담겨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은 시종일관 공격적이지는 않다.

당대에 금지된 연극을 오페라로 하려면 일정부분 손을 봐야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모차르트의 성향 자체는 보마셰와 달랐다.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백작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스잔나와 백작부인은 마지막으로 방법으로 스잔나가 백작에게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어두운 정원에서 만나자는

편지를 쓰고(이 장면이 바로 쇼생크탈출에 나오는 편지의 이중장이다. 백작부인과 스잔나가 백작을 속이기 위한 편지를 쓰면서 부르는 곡) 스잔나와 백작부인이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나가기로 한 것이다. 백작은 자신의 부인인줄도 모르고 스잔나(백작부인)에게 절절히 사랑을 고백하면서 흥분한다. 원효대사 해골물이 따로 없다. 문제는 그녀들의 계락을 모르는 피가로마저 오해하면서 이야기는 또 꼬여버리고 마지막에 백작은 피가로가 자신의 부인과 부정한 관계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대로하고 그들을 벌하려다 스잔나로 분한 백작부인의 등장으로 어안이 병병해졌다가 이 모든 소동이 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서 오페라는 막을 내리게 된다. 그의 용서에 모두가 화해하면서 손을 맞잡는 엔딩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피가로의 오페라가 고금을 통틀어 최고의 명작이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 장면 때문라는 것이다. 어둑어둑한 정원은 마치 우리들이 살고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누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고 그래서 의심과 기대로 부대끼며 살아간다. 서로 속이고 속지 않으려 애쓰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속게 되고 그 누군가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속는다. 그렇지만 가장 높은 위치의 백작이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화해를 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인생이 축제가 되는 그 모습. 어쩌면 앤디가 꿈꿨던 바깥세상이고 우리고 꿈꾸는 미래가 아닐까? **OLP**

OLP 21기 졸업여행



101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만 전경



—
글
강영구
OLP 21기
MBN 산업부 차장

“대만, 가즈아~!”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인천공항. 동이 트기도 전인 인천 바닷바람은 유난히도 매서웠다.

‘혹시 지각하는 원우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2박 3일간의 대만 졸업여행을 앞둔 이런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1월 12일(금) 새벽 5시 30분에 인천국제공항 1청사 3층 출국장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정말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47명의 원우님(가족 포함)들이 모두 공항에 딱 맞춰 도착한 것이다. 무려 400km 떨어진 경남 창원에서 차를 몰고 온 김종철 원우님과 가족들, 세종시에서 올라 온 정지우 원우님과 가족 등 전국을 뽕뽕 얼린 동장군도 OLP 원우님들의 하나 된 열정을 막진 못했다.

순조롭게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OLP 원우님들로 가득 찬 여객기는 흡사 서강대학교 OLP 강의실을 방불케 했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원우님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두 손 꼭 잡으며 애정을 과시하였고, 자녀를 동반한 원우님들은 가족애를 물씬 풍겼고, 싱글로 참석한 원우님들도 사이 좋게 나란히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사실 당초 졸업여행 목적지는 대만이 아니었다. 일본 미야자키였다. 하지만, 유난히 잘 뭉쳤던 OLP 21기는 여행사 예상(30명 내외)보다 훨씬 많은 47명의 원우님(가족 포함)들이 졸업여행을 신청하면서 미야자키행 비행기표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다. 차질 졸업여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지만, 흥재식 회장님을 비롯한 OLP 21기 지도부와 원우님들이 재빨리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해 대만행을 결정한 것이다.

참고로 대만은 작은 섬나라다. 면적은 남한의 약 3분의 1 정도이고, 인구도 2천 300만명 정도이다. 탄탄한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유명해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경제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한국 경제는 대만을 추월했고, 물가도 대만이 우리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인천공항 이륙 후 약 2시간 30분이 흘러 비행기는 타이페이 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가이드를 만난 우리는 곧바로 관광조(34명)와 골프조(13명)로 나뉘 2대의 버스에 올라탔다.

관광조는 첫날부터 일정이 빡빡했다. 장개석 총통의 민주기념관, 충열사 위병교대식 관람, 국립 고궁박물관, 용산사 등 설 틈 없는 코스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멋진 곳은 국립고궁박물관이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함께 세계 4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송, 원, 명, 청 등 5천 년 역사의 중국 왕조 국보급 유물 70만 점이 가득했다. 고궁박물관 이야기만 써도 이 여행기를 다 채울 만큼 화려했다.

그중에서도 두 가지만 꼽자면 영롱한 빛깔의 '취옥배추'(翠玉白菜)와 어마어마한 가격의 술잔 도자기 '투채'(鬪彩)가 베스트 중의 베스트였다.



- 01 용문사
- 02 관광조 단체사진
- 03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된 취옥배추



‘취옥배추’는 청나라 말 통치자 서태후의 머느리가 가져온 예물로, 배추 모양 비취에 여치 두 마리가 조각돼 신비로움을 자아냈다. ‘투채’는 지름 8cm의 조그만 술잔인데, 지난 2014년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380억 원에 팔린 작품이다. ‘색깔끼리 다툰다’는 뜻을 담은 투채를 두 개나 봤으니, 계산해 보면 760억 원. “이번 여행 본전은 다 뽑았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 밖에도 정교함이 탄성을 자아내는 상아조각과 옥으로 만든 병풍 등을 보며 눈이 호강했다.

첫날부터 강행군하는 관광일정이었지만, 코스 중간에 집어넣은 30~40분간의 발마사지 코스가 신의 한수였다. 대만의 베테랑 지압사들이 다리와 어깨의 뭉친 곳을 풀어주고, 마사지 때 반응하는 근육을 보고 몸에 어디가 부실한 지 알려줬다. 덕분에 장개석 총통의 민주기념관, 용산사, 대만 야시장 등의 관광 코스도 수월하게 진행됐다.

둘째 날 코스는 스펀에서 소원풍등 날리기, 갖가지 기암괴석이 가득한 야류 해안공원, 타이페이 랜드 마크 101 타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4인 1조로 풍등을 날리는 스케줄은 처음에는 다소 시시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웬 걸. 대만 관광 코스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코스가 바로 풍등 날리기였다. 예상보다 훨씬 큰 풍등 4개면에 소원을 적고, 하늘로 날려 보내는 체험코스였다. 우리 부부는 이윤환 사무총장 부부와 짝을 이뤄 풍등에 소원을 적었는데, 먹물 붓글씨로 소원을 적을 때는 다들 전설의 서예가 왕희지처럼 솜씨를 뽐냈다. 또 스펀역 기차길 위에서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인생샷’ 사진도 남길 수 있었다.

타이페이 랜드 마크 101 타워 전망대에 이어 저녁에는 ‘대만의 명동’으로 불리는 서문정 거리를 들렀다. 대형 전광판에는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노래 ‘DNA’가 울려 퍼졌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따라 부르는 대만의 길거리 뮤지션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편이 뿌듯해졌다.

특히 이번 여행에는 볼거리 위에도 대만의 풍성한 먹거리가 좋았다. 갖가지 딤섬 코스와 해산물 요리, 샤브샤브 등이 사모님들의 간간한 입맛까지 사로잡은 식도락 여행이었다.



Taiwan



- 04 대만의 랜드마크 101타워
- 05 발마사지 받는 골프조
- 06 지우펀에서 인생샷





07



08



09



10

- 07 점심식사를 즐기는 골프조
- 08 야류 해안공원
- 09 다양한 점심 코스
- 10 지우펀 풍등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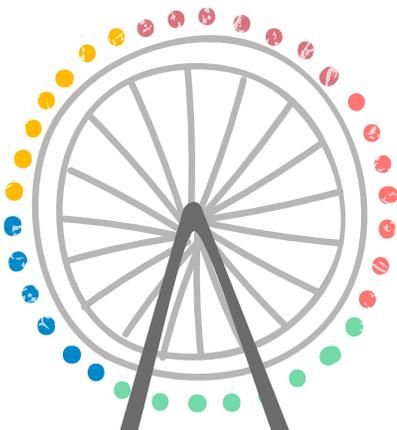
또 이동 중에 버스 안에서 맛본 특이한 열매 ‘빈랑’(씹는 각성제)을 체험해 본 것도 이색 경험이었다. 빈랑은 마약으로 오해받을 만큼 각성효과가 뛰어난 천연 열매로 순간적으로 몸에서 열이 나고 눈이 밝아진다고 한다.

한편, 골프조는 바람과의 사투(?)를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원래 대만의 1월 날씨는 우리나라의 늦가을 정도인데, 이번 여행기간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와 대만도 무척 쌀쌀했다. 한국에서 입고 간 겨울옷을 대만에서도 그대로 입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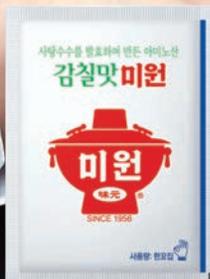
순식간에 이틀간의 여행 일정이 끝나고 마지막 귀국일이 되자 다들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도 알찬 여행으로 추억은 가득했다. 특히 적지 않은 인원이 이동했음에도 늦는 사람 한명 없었고, 작은 사고도 없이 즐겁게 여행을 마친 데는 모든 원우님들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멋진 OLP를 세팅해 주신 김홍균 경제대학원 원장님과 정재식·이강오 교수님, 21기 OLP의 중심을 잡아주신 홍재식 회장님과 이운환 사무총장님 등 모든 원우님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금요일 새벽에 시작된 OLP 21기 대만 졸업여행은 일요일 오후에 마침표를 찍었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의 길을 걷는 분이 OLP의 멤버가 되고, 또 이 멤버들이 뭉친 힘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모 원우님의 말처럼 21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기수임에 분명했다.

“OLP에 이어 OLC에서도 21기 가즈아!” OLP



맛의 기적 한 꼬집
**오 쓸래
미원**





OLP 원우의 나의 회사 이야기

OPINION
LEADERS
PROGRAM

30년간 한 우물 파기로 이룩한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인프라 기업,
오리엔트바이오

장재진 OLP8기

‘마약팬티’ 라쉬반 한 번 입어보면 못 바뀐요

백경수 OLP21기

30년간 한 우물 파기로 이룩한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인프라 기업,
오리엔트바이오



장재진

OLP 8기 오리엔트 바이오 회장



글
김상철
OLP 8기
동아일보

Orient Bio

오리엔트바이오의 신약 개발 때 사람 대상 임상시험 전에 약효, 독성, 부작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동물실험에 필요한 생물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늦겨울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월 초 성남에 있는 오리엔트바이오 본사에서 OLC 제5대 회장을 역임한 OLP 8기 장재진 회장을 만났다. “실험동물 생산에 머물지 않고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실험 데이터를 활용해 신약과 동물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재진 회장은 “신약 개발에 필요한 동물실험을 대행해주는 미국 비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인수해 글로벌 CRO 네트워크를 구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실험동물 생산 및 수출입, 생명과학 관련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 코스피 상장 기업이다. 모태는 1959년 설립된 시계 제조업체 (주)오리엔트로, 2003년 바이오제노믹스와 합병한 뒤 2005년 시계 사업부문을 떼어내고 회사 이름을 오리엔트바이오로 바꿨다.

오리엔트바이오의 신약 개발 때 사람 대상 임상시험 전에 약효, 독성, 부작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동물실험에 필요한 생물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실험 결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국제의약품규제화위원회(ICH)가 권고한 국제우전자표준(IGS) 실험동물을 써야 한다. 국내에는 IGS 실험동물이 없어 1999년 세계 최대 실험동물업체인 찰스리버와 기술제휴를 맺고 설치류 모체를 도입했다. 2010년 세계 1위 CRO업체인 코반스에서 비글 모체를 들여왔다. 2011년엔 캄보디아 영장류센터를 인수했다. 수입하던 IGS 실험동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해 외화 절감은 물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 OBRC
Orient BioResource Center
 미국 텍사스 주에 위치한 OBRC(Orient BioResource Center)는 미국 내 고품질 실험동물 생산/공급과 의료 및 실험장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시장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CRO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Hylasco
Hylasco
 인도 남부 하이데라바드 지역에 위치한 Hylasco Biotechnology Private Limited는 인도 내에 수요가 늘고 있는 연구/실험/생산 시설로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경에서 필요한 분자진단 시스템을 포함해 첨단 정밀의학 서비스의 공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은 대학을 중퇴하고 리비아에서 3년간 건설근로자로 일했다. 귀국 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며 방송통신대 경제학과에 편입했다. 부인을 만나 결혼한 그는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아이템을 찾았다. 우연히 서점에서 '실험동물의학' 책을 보고 저자인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를 찾아갔다. 바이오산업 태동기라 수요가 적어 실험동물 사업이 힘들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 먼저 경험을 쌓기로 하고 1989년 해은기 기교역상사를 창업했다. 비닐하우스에서 기른 국산 마우스와 실험 기자재를 유통하다 외국산 실험동물과 기자재를 수입해 팔았다. 1991년 바이오제노믹스를 세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마우스를 모체로 실험동물 생산에 나섰다. 어렵게 거래를 터 동아 제약 중앙연구소에 마우스를 공급했다. 연구진이 유전적으로 오염된 마우스여서 쓸 수 없다고 해 큰 손해를 보고 전망 폐기했다. 해외 실험동물 시설을 둘러본 뒤 정부의 신약 개발 자금을 받아 가평에 사육센터를 지었다. 찰스리버가 사육센터를 팔라고 했으나 거절했다. 다시 기술제휴를 제의해 받아들였다.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껴 건국대에서 수의학 석사, 강원대에서 수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멀티숍 '더 사갈' 1호점을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4F)에 내고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도 진출



미국에서 3대 중대형
실험동물업체인 SRC를
인수해 인도와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까다로운 일본의 검역
심사를 거쳐 영장류를
수출한 것을 계기로 비글
수출도 추진 중이다

오리엔트바이오는 경기, 전북, 충북 등 국내 3곳과 캄보디아에 사육센터를 두고 있다. 한 해 생산하는 실험동물은 마우스 500만 마리, 랫(rat) 150만 마리, 누드마우스 25만 마리, 비글 4천 마리, 원숭이 5천 마리 등 700만 마리에 육박한다. 자체 생산하지 않는 기니피그, 토끼 등은 찰스리버, 코반스, 기타야마 같은 해외 협력업체에서 들여와 공급한다. 실험동물 생산·관리는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의 복지 및 윤리 규정을 따르며 국내 실험동물윤리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거래처는 신약 개발이나 각종 질환을 연구하는 한미약품 녹십자 등 제약회사, 안전성평가연구소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 주요 대학과 병원 등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이른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지난해 자회사를 통해 인도에서 찰스리버 실험동물을 생산·판매하는 하이라스코를, 미국에서 3대 중대형 실험동물업체인 SRC를 인수해 인도와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까다로운 일본의 검역 심사를 거쳐 영장류를 수출한 것을 계기로 비글 수출도 추진 중이다. 또 자회사 오리엔트를 통해 코스메슈티컬(화장품과 의약품 합성어) 멀티숍 ‘더 사갈’ 1호점을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에 내고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도 진출했다.

발모제 신약(OND-1)은 미국 독일 중국 등 21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지난해 1차 임상시험을 마쳤다. 올해 하반기 2차 임상시험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질환 모델 동물을 이용한 비임상시험 대행, 민간 기업 최초 장기이식 연구, 동물실험 기자재 개발도 하고 있다. 실험동물을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개별 공조 케이지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으로 해외로 수출된다.

한국실험동물협회장을 맡고 있는 장 회장은 “설치류부터 영장류까지 생산하는 기업은 해외에도 거의 없다”며 “IGS 실험동물 확보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지만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OLP**



실험동물을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개별 공조 케이지시스템



‘마약팬티’ 라쉬반 한 번 입어보면 못 바꿔요



백경수

OLP 21기 라쉬반코리아대표이사

라쉬반 남성 기능성 팬티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최초 분리구조다. 특허 받은 3D분리형 남성 속옷을 만들고 있다. 유칼립투스 나무로 만든 천연소재 텐셀을 사용해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며 국내에 4건의 특허가 있고 세계 15개국에도 특허가 등록돼 있다.

백 대표는 “라쉬반 분리 구조 속옷은 음경과 음낭을 따로 담아 허벅지와 자연스럽게 분리해 땀, 냄새, 세균을

완벽하게 예방해 준다”며 “남자의 최적온도 33.3도를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지구의 중력으로 음낭과 음경이 늘어나 발생하는 고환 기능 약화와 발기부전과 같은 질환에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천연 소재를 사용한 것도 강점이다. 백 대표는 “코알라가 먹는 유칼립투스 나무로 만든 텐셀 섬유를 사용했다”며 “일반 면에 비해 비싸지만 매끄럽고 흡수성이 뛰어나 민감

한 피부에 좋고, 박테리아 성장도 억제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입던 기능성 팬티와의 차별성도 분명히 했다. 백 대표는 “최근 기능성 팬티가 국내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지만, 이전 특허 제품들은 착용감도 불편하고 번거로우며, 보기에 민망다”며 “라쉬반은 일반 팬티와 유사하면서도 입으면 정말 편하고 온도도 약 3도정도 내려가 기능면에서 확실히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의 제품에 대한 자신감은 판매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CJ오쇼핑에서 4년 연속 남성 팬티 부문 매출 1위를 차지했고, 온라인에서도 지난해부터 대박 판매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라쉬반의 남성 속옷은 이상민 팬티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한 종합편성채널 오락프로그램에서 방송인 이상민이 자신의 속옷 라벨을 보여주며 자랑했는데 그 브랜드가 라쉬반이었다.

이후 라쉬반에서 이상민을 광고 모델로 섭외했다. 이상민이 제품 개발에 참여해 ‘이상민X라쉬반 본투핏(Born To Fit) 드로즈’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상민 섭외 후 브랜드 인지도 상승은 물론 매출상승도 가파르게 이어갔다.

실제로 2013년 설립 이후, 라쉬반코리아의 매출은 매년 80%대 상승중이다. 2013년 6억 600만원으로 시작해 2014년에는 33억 8400만원, 2015년에는 56억 5800만원이었다.

땀·냄새·세균 억제 효과 탁월...
홈쇼핑 중심 대박 판매 행진
실제로 2013년 설립 이후, 라쉬반코리아의
매출은 매년 80%대 상승중이다.



그리고 2016년 81억 6500만원으로 상승한 후 지난해 마침내 130억 원을 돌파했다. 5년 새 매출이 2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라쉬반 관계자는 이러한 매출 상승 요인에 대해 “라쉬반 드로즈는 전세계 기능성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말할 수 있으며, 4개 특허를 바탕으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제품경쟁력이 가장 큰 요인이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라쉬반을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2016년 프랑스 파리 라제리쇼에 국내 남성 언더웨어 업체로서는 처음 참가한 데 이어, 미국 최대 패션박람회 ‘매직쇼’에도 제품을 출품했다. 2016년 일본에 처음 진출한 라쉬반은 1년 반동안 백화점 7군데로 매장을 확대했고 매출도 지난해 16만 달러에서 2017년 33만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했다. 다만 진출에 이어 다른 아시아 지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쉬반은 최근 게르마늄이 들어간 기능성 제품, 그리고 군인 등 젊은 남성들을 타깃으로 한 기능성 속옷을 또 준비 중이다. 게르마늄 신제품은 분리기술 기능성에 게르마늄 효능까지 더한 프리미엄 라인이다. 팬티 전체에 신비의 원소 게르마늄을 가공해 엔들핀 생성을 촉진하고 피로회복을 돕는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백경수 대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제품을 내놓겠다”며 “국내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전세계로 진출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라쉬반의 모토를 달성하겠다”고 강한 포부를 나타냈다. OLP

신/제/품/출/시

LASHEVAN PREMIUM

최고급 자가온도소재 페어쿨과 게르마늄으로
쾌적감 극대화!



OLP Travel Essay

OPINION
LEADERS
PROGRAM

런던 아이
지태현 OLP 97기



클.
지태현
OLP 9기
Shire-HGT
Representative/
Consultant



런던 아이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한곳만 바라보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
세상이 넓게 그리고 멀리까지 보였습니다.
모두가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모두 내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올라 갈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또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졌던 황홀한 광경이
사라지기도 전에
나는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럽지 않았습니다.
오르면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는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보다 더 맛있는 밥-

햇반[®] 컵반

햇반컵반 하나면 어디나 **맛집**

가정식전문
**1인
맛집**

비빔밥이 맛있는 집

감칠맛 ★★★★★



햇반컵반은 '컵'에 담은
가정식 '반(飯)'상을 의미합니다



OLP

OPINION
LEADERS
PROGRAM

OLP Essay

못말리는 내 버릇
홍승일 OLP 6기

미장원에서 의 참극
고철종 OLP 7기

사진으로 세상을 옮기는 방법
문규선 OLP 13기

성공을 방해하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 13가지
김상민 OLP 7기

여자 프로골퍼들의 귀
안미현 OLP 10기

의식이 족해야 예를 안다고?
예를 알아야 의식이 족하다가 아니고?
김수영 OLP 18기

중국의 차부뚜어 선생과
한국의 나보기(내생각) 선생
김상민 OLP 7기

체스키크롬로프 가는 길
지태현 OLP 9기



나의 습관 가운데 “촌스럽다”는 주변의 핀잔을 듣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출퇴근 때 종이 쇼핑백에 신문을 잔뜩 쓸어 담고 다니는 일이다. 음식이든 물건이든 무얼 잘 버리지 못하는 습성이 갈수록 강박증으로 발전했는지 사무실이나 집에 쌓인 신문뭉치를 들고 나오기 일쑤다. 그리고 대중교통 출퇴근 편도 50분을 활용해 출근 또는 귀가와 함께 읽고자 하는 기사나 칼럼을 모조리 읽어서 그 쇼핑백을 비우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대개 목표 달성은 허사로 끝난다. 이렇게 다 읽지 못한 신문과 스크랩이 집이나 사무실에 쌓여만 간다.

이렇게 십수년 하다 보니 신문뭉치가 개인 이미지로 굳어지기까지 한 모양이다. 한 직장동료는 “홍 아무개 하면 한 손에 쇼핑백 들고 다니는 모습을 떠올린다. ‘쇼핑백 패션’으로 정착된 거 같다”고 홍을 본다. “누가 신문기자 아니랄까 봐 너무 티내는 것 아니냐”는 친구들 비아냥도 나온다.

정말 내가 봐도 병은 병이다. 신문 한 부나 얇은 잡지 한 권 정도 손에 쥐고 다니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하긴 그런 모습마저 요즘은 스마트폰에 밀려 많이 줄었지만) 두툼한 신문뭉치를 늘 옆에 끼고 다니는 사람은 아침 신문 배달부 말고 또 누가 있나.

베이비부머 꾀대의 강박증인지

30년 기자의 종이신문 戀歌인지

나의 출퇴근 쇼핑백은 웬만한 주요 일간지였다 꾸깃 꾸깃한 신문 쪼가리로 가득하다. 시간 없어서 아예 손도 대지 못한 뻗뻗한 오늘 신문, 또는 읽다 만 지난 신문이 주종이다. 며칠, 심지어 몇 주일 묵은 신문도 있다. 꼭 읽어봐야겠다 싶어 잘라 놓은 기사나 칼럼도 많다. 집이나 사무실에는 이렇게 잘라놓은 기사가 몇 박스는 된다. 곧 읽어야지 해 놓고 묵은지처럼 2년 이상 묵은 것들도 많다. 승용차 몰고 나오는 날은 운전 때문에 못하지만,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은 기사나 칼럼 읽느라 바쁘다. 읽고 싶은 걸 다 읽어야 비로소 신문을 버릴 수 있다.

다 읽은 신문을 곧바로 휴지통에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 지나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대기석에 올려놓는다. 열차나 버스를 기다리느라 지루할지 모르는 승객들에

못말리는 내 버릇



—
글
홍승일
OLP 6기
중앙일보디자인 대표

게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나만의 배려이자, 한편으론 스마트폰에 중독된 세상을 향한 일종의 아날로그 시위다. 요즘 지하철을 타면 90% 이상의 승객은 고개 숙이고 손바닥보다 작은 화면 들여다보느라 여념이 없다. 무가지를 포함해 종이신문 보는 사람은 차량 한 동에 한 사람 만날까 말까 할 정도다. 하도 단말기에 고개를 파묻고 있어 훑훑했던 지하철 차량 벽 광고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린 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서 양팔로 신문 쪽 펴고 읽고 있는 내 모습은 구닥다리 종이신문 세대의 처절한 1인 시위인 셈이다.

한편으론 나름의 공유경제 실천 방안이라고 자위도 해 본다. 지구 환경을 해쳐가면서까지 귀한 나무를 잘라 만드는 신문 한 부 한 부가 한 사람 손만 거치고 버려지는 것이 늘 안타까웠다. 이렇게 좋은 신문을 나 한 사람 읽고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신문사라 저녁이면 읽지 않은 신문이 통째로 휴지통에 들어가기 일쑤다. 그걸 직원들이 몇 부씩 들고 나가 퇴근길에 풀면 어떨까.

요즘은 읽고 난 신문을 내려놓는 장소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지하철에서 벗어나 버스나 택시 정류장 대기석, 매일 가는 피트니스센터 휴게실, 상가 빈소 옆 복도, 출장이나 여행 때 공항·역사 로비, 진료받는 병원 환자 대기실, 우리 아파트 1층 로비 등등, 유동인구 많고 신문 놓을 공간 있는 곳은 다 포함된다.(실로 강박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고 보면 1990년대 초년 기자 시절 생각이 난다. 회사에서 이색 경기가 발동된 적이 있다. 퇴근하면서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간 중앙일보를 지하철 칸에서 보다가 무심코 놓고 내리는 일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회사 지침이었다. 내가 놓고 내린 신문 한 부 때문에 지하철이나 길거리 가판 한 부가 덜 팔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 반전됐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읽던 중앙일보를 가급적 놓고 내리라는 정반대의 권고로 바뀌었다. 중앙일보 가판 제작이 중단된 데다, 신문한 한 부 파는 것보다 한 부라도 독자가 더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쪽으로 마케팅 정책이 변한 것이다. 내가 신문을 들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내려놓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던 것 같다. 요즘은 신문을 변화한 장소에 놓

아도 행인들이 잘 가져가지 않는 걸 보면 씁쓸하다. OLC 동기(6기) 모임에 갈 때면 주간 중앙SUNDAY 잔뜩 싸 들고 나가 나눠드리는 것은 내 나름의 작은 선물이자 종이신문 캠페인이다.

출근·퇴근을 마치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훌쩍 줄어드는 쇼핑백을 보면서 나름의 포만감을 느끼곤 한다. 신문사 30년쯤 다녔으면 신문이 꼴도 보기 싫어질 법 하련만 아직 물리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 오히려 “신문은 정말 읽을 것이 많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다. 일반기사보다 칼럼 같은 의견기사가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다. 단순히 애사심이나 직업정신 때문은 아니다. 단 말기로 보는 신문은 신문 맛이 안 난다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디지털 미디어가 갈 길이긴 하지만 구미에 맞는 정보만 찾아서 읽는 뉴스편식증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마주치는 인턴 사원이나 대학생 딸을 비롯해 젊은 사람들 만나면 종이신문 찬찬히 넘기면서 읽는 습관 들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신문처럼 짧은 시간에 생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정보상품은 없다고. 아마도 기성세대의 고리타분한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작년 말 중앙일보디자인라는 중앙일보 자회사를 맡게 되었다. 중앙일보 종이신문 제작공정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회사다. 30% 정도는 다른 신문이나 대학 학보 등 제작 용역을 한다. 따라서 중앙일보 종이신문이 잘되고 못되고가 이 회사 실적에 직결된다. 신문 쇼핑백 들고 종이신문 찬가인지戀歌인지 외치고 다니는 바람에 이런 자리 맡겼는지는 모르겠다. 하여간 맡은 회사의 실적 제고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의 촌스러운 종이신문 쇼핑백 패션은 좀 더 지속하지 않을까 싶다. O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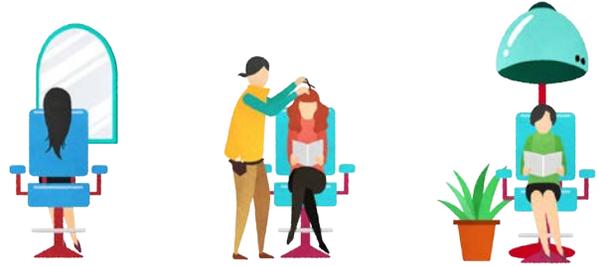


미장원에서서의 참극

‘첫 경험에 대한 두려움을 편안함으로 바꾸기’



글
고철중
OLP 7기
SBS 뉴스제작부 국장



무언가 안 해보던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 거창한 그 무엇뿐만 아니라 생활의 작은 습관도 그렇다. 자주 가던 목욕탕이 폐업해 버렸다. 거기서 항상 이발을 해왔는데, 머리 깎을 데도 같이 사라졌다.

주변에 그렇게 많던 남성전용 이발소도 거의 없어지고 남은 곳 역시 퇴폐 이미지가 강해 편하게 머리 깎을 데가 없다. 그런데 이런 푸념은 상식적이지 않은 거란다. 모두가 가는 미용실에 왜 안 가냐는 거다.

결국 떠밀리다시피 동네 미용실에 갔다. 여자들이 쳐다보면 어떡하나 했는데 서너 명 있던 중년 여성들은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직 미용실 원장과 종업원만 반갑게 인사한다.

머리 손질할 때 셔츠를 입고 있어야 할지 벗어야 할지도 몰라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입은 채로 카라만 옷 속으로 집어넣었다.

원장이 상냥하게 물었다.

“어떻게 해 드릴까요?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그냥 알아서 잘 해 주세요.”

원장이 능숙하게 가위로 손질하는데 그래도 이발소만 다니던 내겐 영 정교하지 않고 설렁설렁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맘속으로 제대로 하는 건가 의구심이 생길 무렵, 커트를 마친 원장이 머리를 감아야 한다며 내게 저쪽 세면대에 앉으란다.

세면대쪽으로 가보니 의자가 이상하게 세팅돼 있었다. 120도 정도로 의자가 눕혀 있었는데 참 앉기에 고약했다. 세면대를 향해 앞으로 앉았는데 거의 엎어지다시피 몸이 기울어지면서 턱이 턱받이에 바로 걸려 머리가 직각으로 섰다. 이 각도에서 어떻게 머리를 감는 건지 모를 노릇이다. 그런데 원장이 오더니 놀란 눈으로 물었다.

“사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자세가 불편하다보니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억지로 대답했다.

“왜요? 머리 감는다면서요?”

그 때 저쪽에서 파마를 하던 한 아줌마가 내 모습을 보더니 입을 가린 채 웃는다. 다른 여자는 대놓고 깔깔거리며 폭소를 날렸다. 뭔가 잘못됐다. 큰 맘 먹고 미용실에 왔는데, 무슨 실수를 한 거지?

원장은 애써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사장님, 미장원 처음 오셨나 봐요. 그렇게 앉지 마시고 뒤로 누우셔야 머리를 감겨 드리지요.”

어쩐지 이상했다. 무안함을 애써 숨긴 채 자세를 반대로 하고 눕다시피 앉았다. 결국 한 건 했다. 예전 이발소에선 세면대에 앞으로 엎드리면 이발사가 머리를 감겨줬는데 미용실은 그 반대였던 거다. 턱을 대고 있던 곳은 턱받이가 아니라 머리 받침대였다. 눈치껏 알아챘어야 했는데, 머리를 씻기는 도중에도 익숙지 않은 자세 탓에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을 줬던 모양이다. 원장이 말했다.

“사장님 목에 힘 빼고 편하게 계세요. 목에 힘을 주니까 머리 감기기가 힘들어요.”

젠장! 편하지가 않다. 그러곤 머리를 말리고 또 뭔가를 발라 지압기능이 있는 기계를 돌리고, 또 머리를 감고 아무튼 서비스를 잘 받은 것 같은데 시간은 길고 힘들었다.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미용실과 친해졌다. 이전 아무렇지 않게 미용실을 방문하고 서비스도 즐겁게 받는다. 머리 감을 때도 목에 힘을 빼다.

지나고 보면 이렇게 편하고 괜찮은 것도 처음은 항상 어색하고 불편하다. 새로운 것, 처음 하는 것에 대한 귀찮음과 두려움을 조금만 벗어던지면 사는 게 한층 더 즐거울 것 같다. **OLP**

사진으로 세상을 읽기는 방법

잘 보고 마음으로 담아냅니다.



—
글
문규선
OLP 13기
(주)팀스사외이사

숨을 들이 마시기 위해서는 내뱉어야 합니다. 기억 하거나 의식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을 관찰(觀察)해야 합니다.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제자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고 물으니, 그 까닭(의도)을 보고, 그 경과를 살펴보고, 그 명분이 무엇인지를 알면 어찌 숨길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논어, 위정편) 눈으로 실체(what)를 보고 머리로 어떻게 할 것인지(how to)살피고, 마음으로 표현하려는 의미를 그려내야(why) 합니다.

눈으로 빛을 읽다.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는 조리개의 크기와 깜박거리는 셔터의 속도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주 깜빡일 건지, 초생달 같은 눈살을 하고 오래 동안 직시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크기에 따라 머릿속에 각인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깊게 각인하려면 눈을 가늘게 하고 오래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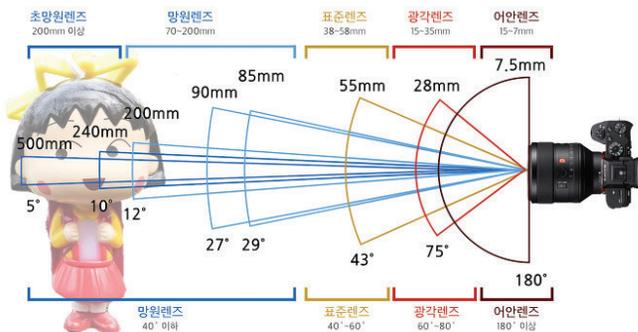
피사계의 심도를 깊게 하려면 조리개를 적게 열고 셔터속도를 길게 해서 오래 보아야 합니다.

(조리개 숫자: OPEN ← 1.2, 2, 2.8, 5.6, 8, 11, 16, 22, 32, 45, 64 → CLOSE)

마음과 마음 사이, 거리를 정하다.

마음의 거리에 따라 관계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제기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그 안에 마음의 거리인 신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진기의 렌즈는 거리를 담당합니다. 초점거리에 따라 화각이 달라져 담아내고 싶은 기억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렌즈의 종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나라의 외교와 먼 나라의 외교의 방법이 다르듯이, 대상의 가깝고 먼 곳을 담을 도구가 다릅니다. 먼 나라의 외교는 신뢰가 아닌 식량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 곳을 담으려면 다소 비용이 드는 망원렌즈가 필요합니다. 먼 곳을 찍을 수는 있지만 화각이 작아 선택적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나, 그 마음의 관계(심도深度; 깊은 정도)는 압니다.



렌즈의 종류에는 크게는 단초점렌즈와 장초점렌즈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하는 필름(CCD)의 대각선 길이 (50mm)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단초점(광각)렌즈는 화각이 넓으나 왜곡이 생깁니다. 장초점(망원)렌즈는 화각이 좁아서 화면을 압축하여 구성할 수 있으나 원근감이 없습니다. 그때그때에 맞게 마음을 써야하듯이 렌즈도 바꾸어 쓰면 표현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Zoom렌즈는 초점거리를 자유로이 변환시켜 구성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집중이 안 되는 것과 같겠지요. 길은 아닌 척 하나 마음은 다른 '츄데레(일본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츄+데레', 즉 '차가움+따뜻함'의 반대 성향을 한꺼번에 가지는 의미입니다. 사실과 표현이 다른 거지요.

화각이 넓은 단초점렌즈는 왜곡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표현되는 겁니다. 보통 35mm 필름(CCD)의 경우 그 대각선의 길이가 47mm이어서 초점거리가 50mm이면, 화각이 47도로 사람의 시각과 가장 비슷한 느낌의 거리를 갖고 있어 피사체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각과 렌즈길이가 같아야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속마음을 겉으로 정확히 표현해야 오해와 편견이 생기지 않습니다. 50mm 렌즈를 표준(standard)렌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기를 말하려 하지 않는 걸까요?' OLP

성공을 방해하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 13가지



—
글.
김상민
OLP 7기
책 '아버지에게서 받은
100개의 편지'
'이기적 국민' 저자

필자는 일주일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교류했는데,
여기에는 학생, 교수, 벤처투자자, 기업인 등이 다양하게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 된다. 서점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다룬 책이 넘쳐난다. 2013년 초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에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기사 제목은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13가지 습관(13 Little Things You’re Doing to Sabotage Your Success)’이다. 중요도에 따라 순번도 매겨져 있다. 1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2번, 3번으로 나가는 식이다.

필자는 일주일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교류했는데, 여기에는 학생, 교수, 벤처투자자, 기업인 등이 다양하게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나이, 무대, 직업에 관계없이 미래의 성공을 방해하는 작은 습관들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면서 글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읽다보면 OLC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자녀, 친구들에게도 두루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공의 방해요소에 2번을 차지한 것은

2번 ‘말이 행동을 앞서는 사람’_Flaky McFlakerson

식사나 운동 약속을 했는데 막판에 취소하거나, 말을 자주 바꿔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은 체계적인 삶을 살지 못하며 끊임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기도 한다. 미국 회화에서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다’를 ‘He’s Flaky.’라고 표현한다.

3번 ‘성급한 결정’_Quick Sale

대답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라는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나 세 번 신중히 생각하고 한 번 조심스럽게 말하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중해야지 본인의 손을 떠난 물건을 놓고 뒤늦게 생각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4번 ‘힘담과 뒷말’_Talking Crap

대화를 하다보면 업무나 동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술자리에서 최고의 안주가 상사와 동료에 대한 뒷담화이지만 그게 어느 순간 부메랑이 될지 모르는 세상이다.

“그 사람 참 귀찮게 한다면서. 그녀랑 일하는 것은 끔찍했어. 이번 팀원은 형편없는 파트너가 될 거야.” 등등 수많은 힘담과 뒷담화를 할 때 본인도 언젠가 안주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는 게 필자의 조언이다.

5번 ‘과도한 기대’_Over-promising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중요하며, 기적을 바라면 기적이 실현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레발이 지나치면 자칫 허풍쟁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면 합리적으로 미래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6번 ‘남 탓하기’_Not My Fault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다. 실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고, 늘 예비 희생양을 두기도 한다. 잘못을 지적하는 손가락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할 수 있지만, 손가락질을 하다보면 다섯 손가락 가운데 3개는 자신을 향함을 깨닫게 된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말한 ‘내 탓이요’라는 말은 대체로 옳고, 실수는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7번 ‘인내심 부족’_Lack of Patience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업적 가운데 빠르고 쉽게 달성되는 것은 없다. 집중하고 열심히 일하고 휴식하고, 다시 집중하고 열심히 일하고 휴식하고, 빠른 지름길이나 비밀이 들어 있는 큰 정보를 찾는 일은 멈추는 게 낫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으니까. “그는 요령이 없어.”라는 말, 즉 우직하고 인내력 있다는 말이 힘담이 아니라 칭찬이 되는 사회가 선진국 사회다.

이처럼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생선은 무엇일까,
 바로 '맞춤형 실수(Grammar)'다.



8번> 열정 있는 척하기_Pretend Motives

사람의 뉘뉘이는 시간이 흐르다보면 드러나기 마련이다. 진짜 도와주는 것과 도와주는 척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세상은 가면을 쓴 채 돈, 명예, 권력 등을 탐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정을 주지도 않는다.

9번> 목적 없이 살기_Without Intention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 사용할 돈, 시간, 감정 등이 주어진다. 내가 무슨 일을 왜 하는지 모르고, 산만하게 사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골라 집중하다보면 스스로 자신이 성취해낸 일에 대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10번> 오지랖이 넓은 성격_Overcommitting

끝없이 많은 일을 모두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지랖이 넓은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어떤 일에 대해 '예스'라고 말한다는 것은 다른 일에 대해 '노'라고 하는 것과 같다. 남의 일에 나서기 좋아해 모든 부탁을 듣고 말다보면 결국 모든 게 무너지게 된다. 자신의 삶이나 인생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정중히 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

11번> 인생을 쉽게 생각하는 자세_Complication

아주 사소한 일도 중요할 수 있다. 삶은 조그마한 상처, 수많은 위험, 끝없는 기회들로 구성돼 있다. 단순하게 보이는 삶도 언제든지 복잡하게 변할 수 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확실히 성공할거야.'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는다.

12번> 무분별한 행동_Subtraction by Addition

힘든 일을 만나면 더 하고 싶은 경향이 있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그것에 대해 나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실제로 성취하는 것은 아주 작다는 것을 알게 된다. 뺄셈으로 덧셈에 집중하는 것, 즉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일하는 데 더 적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링컨이 말한 것처럼,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날을 세우는 데 4시간을 써야 한다.

13번> 현실부정_B.S.

세상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수치나 주변 환경이 좋다면 그건 앞으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조다. 평화로울수록 전쟁을 준비해야하는 것처럼, 현실에 감사하고 늘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처럼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1번은 무엇일까.

1번- 바로 '맞춤법 실수(Grammar)'

이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철자의 오류는 그 사람이 사소한 것에 부주의한 것을 말해주며, 틀린 맞춤법과 빈약한 문법 등은 그 사람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왜 '맞춤법과 문법 문제'가 성공을 가로막는 주요 요소가 될까. 본인이 신문 기자도 아니고 입시나 고시를 보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쉽게 흘려듣기도 하고, 아마 일부 사람은 미국 필자가 정말 유난스럽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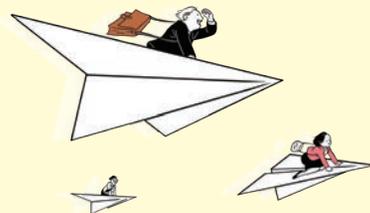
학생들은 수없이 많은 리포트를 써내고, 직장에 다니다보면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거기에 오타자가 있다면 어찌 될까. 리포트나 보고서 내용은 뒷전으로 밀리고 오타자 문제만 부각될 것이다. 신문기사를 읽을 때에도 맞춤법 하나만 틀리면 '에이~'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려고 입사지원서를 쓴다고 하

자. 경쟁률이 100대 1이고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 지원자만 1만 명이다. 그들을 보는 실무자가 10명이라고 해도 한 명당 1000장의 입사지원서가 배당된다. 1명당 1분을 투자한다고 해도 무려 1,000분이니 16시간 40분에 해당한다. 하루 8시간씩 꼬박 이틀이 걸린다. 그 사람이 집중해서 서류를 볼까. 아마도 대충대충 보다가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엉터리인 서류부터 바로 옆으로 제쳐놓을 것이다.

직장인이 어느 회사에 프리젠테이션을 갔는데, 그때 자료에 오타자나 비속어가 들어있다면 상대방이 온전히 받아주겠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건 상대 고객에 대한 성실성과 배려의 부족으로 비쳐진다.

글은 그 사람의 결정체이자 아바타이다. 글쓰기와 문서 작성은 치열하게 공부하고 절대 작은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이상한 단어와 문장, 부호 등은 스스로 바보임을 드러내는 증표이다. 경쟁력이 강조되는 세상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삼 강조되었으면 좋겠다.(그런데, 이 글에 오타자는 없을까? 내심 걱정이다.) OLP



13 Little Things
You're Doing to
Sabotage Your Success

여자 프로골퍼들의 귀^ㅓ



글
안미현

OLP 10기
서울신문 부국장 겸
산업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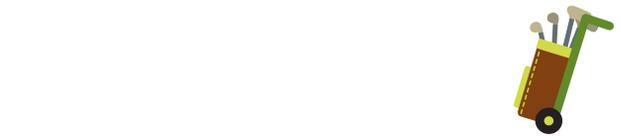
몇 년 전 우연히 여자 프로암 대회에 참석한 적 있다. 실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지인(知人)의 초대 덕분이었다. 처음 받은 인상은 선수들끼리 적어도 겉으로는 너무 친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경기가 시작되면 서로 치열한 경쟁자로 변하겠지만 필드 바깥에서는 서로 언니 동생하며 무척 살가워했다. 대회 때마다 참가하는 얼굴이 크게 바뀌지 않는 때문인지 오고가는 대회를 귀동냥하니 꽤 시시콜콜 서로의 근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랬던 사람들이 필드에서 신경전을 벌이려면 한편으로 꽤나 정신 수양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설핏 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예쁘게 잘 차려입은 선수들을 보며 ‘어쩔 저렇게 다들 예쁘고 날씬할까’ 하는 생각도 속으로 했다.

대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인증샷’을 찍는 시간이 왔다. 키가 작은 탓에 맨 앞줄에 서야 했지만 그 날의 주인공들은 프로선수들이니 조용히 뒷줄로 갔다. 한바탕 시끌벅적 줄 서기가 끝나고 ‘김치’ 하며 앞을 응시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야 잘나이지만 찍히는 사람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얼음뎡’이 돼야 하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그 어색함을 무마하려 눈동자를 살짝살짝 굴리다가 정말 ‘얼음’이 됐다.

눈앞에 일렬로 늘어선 프로골퍼들의 귀가 너무 똑같았기 때문이다. 생김새가 닮았다는 게 아니다. 새까맣게 탄 게 너무 똑같았다. 얼굴은 선수마다 개인차가 있었다. 원래 피부가 하얗거나 선크림을 열심히 바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까맣다. 많이 탄 사람도 화장으로 어느 정도 보정이 됐다. 하지만 모자 밑으로 내밀어진 귀들은 너뎀없이 새까맣다. 아마도 귀까지 선크림을 꼼꼼히 바를 생각은 못했으리라. 구릿빛 귀가 뽀얀 얼굴 화장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더 강렬한 인상을 안겼다.



그을린 귀에서 한여름 열기가 전해져 왔다. 숨이 턱 막히는 피약별 아래서 얼마나 채를 휘두르고 휘둘렀을까. 박세리 선수의 하얀 발이나 최경주 선수의 하얀 이마는 두 사람이 정상에 섰기에 늦게나마 조명이라도 받았다. 이날 프로암 대회에 참석한 선수 중에는 이미 정상에 섰거나 정상 근처에 오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었다. 그들의 귀가 언젠가는 조명 받을 그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흘려온 땀과 노력을 웅변하고 있었다. 순간,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 아름다움만 보고 감탄하고 질시했던 내 자신의 경박함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그 날 이후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과 마주하면 나도 모르게 그녀들의 귀를 떠올리게 된다. ‘나는 얼마나 노력했나’라는 반문이 자동적으로 따라올라온다.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하루 200번 했다는 박성현 선수 등 노력에 얽힌 ‘남다른’ 이야기가 많고 많은데 왜 유독 귀에서 이렇게 강력한 인상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프로암 때 라운딩을 함께했던 이가 이민영 선수다. 정확히는 ‘이민영2’다. 그녀의 귀도 물론 까맣다. 건강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골프채를 다시 잡은 이민영2 선수는 얼마 뒤 일본 대회에서 우승을 해 우리를 기쁘게 했다. ‘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여서 그랬는지 이 선수의 우승이 더 기쁘고 더 각별하게 느껴졌다. 아마도 이름이 같은 다른 이민영 선수들도 지금 이 순간 구릿빛 귀가 더 구릿빛이 되어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습 스윙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프로암 때 라운딩을 함께했던 이가 이민영 선수다. 정확히는 ‘이민영2’다. 그녀의 귀도 물론 까맣다. 건강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골프채를 다시 잡은 이민영2 선수는 얼마 뒤 일본 대회에서 우승을 해 우리를 기쁘게 했다. ‘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여서 그랬는지 이 선수의 우승이 더 기쁘고 더 각별하게 느껴졌다. 아마도 이름이 같은 다른 이민영 선수들도 지금 이 순간 구릿빛 귀가 더 구릿빛이 되어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습 스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새삼 삶의 평범한 진리를 다시 곱씹어 본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OLP

초보 골퍼의 자기 반성 의식이 족해야 예를 안다고?

예를 알아야 의식이 족하다가 아니고?



‘이까짓 것’하고 시작한 골프가 나를 올리고 웃긴 지만 5년이 넘었다. 한 시즌이 끝나 채를 내려 놓고 쉬는 동안 내 골프를 돌아보니 부끄러운 것 투성이다.

나는 골프볼이 위험한 줄 몰랐다. 필드에서 앞뒤 분간 못 하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살을 찌푸렸을까? 규칙을 밥 먹듯 여기는 나를 보며 못 마땅해 한 동반자가 한 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조금만 일찍 그리고 조금만 잘 알았더라면 훨씬 즐겁게 라운드 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도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차’ 실수는 몰라도 절대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글은 6년차 골퍼가 되는 나에게 하는 다짐이다.

골프를 배운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두 세 번은 치고 나서야 겨우 남자들이 티샷 한 것 보다 조금 멀리 보내놓은 나는 남편 친구가 샷을 하는 바로 오른쪽 앞에서 있었다.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그가 친 힘찬 아이언 샷은 생크(볼을 잘못 쳐서 앞이 아니라 옆으로 튕겨 나가는 것)가 나서 정통으로 내게 날아왔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날아든 볼에 맞아 ‘딱’ 하는 소리가 나자 나보다 샷을 한 그가 더 놀랐다. 나는 그대로 주저 앉았는데 크게 다치지 않았다. 볼이 내 벨트 버클에 맞은 것은 기적이었다.

“남 퍼팅 라인에 발자국을 내면 어떻게 해” 남편은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나를 나무라곤 했다. 이 비슷한 말을



글.
김수영

OLP 18기
신한금융투자
홍보실장

들은 것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내 볼이 퍼팅 그린에 올라가면 남들 마커가 어디 있는지 이리 저리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는 것이 몸에 배기까지 말이다.

‘뭘 이 정도 실수를 가지고 저렇게 심한 말을 한담?’ 그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했다. 퍼팅 라인에 스파이크 자국을 내면 볼이 가다가 휘어서 안 들어가기 십상이라는 것을. 나중에라도 ‘볼이 사람 키만 하다면 스파이크 자국은 벽돌 두께 만한 깊이’라고 남편이 다른 초보 골퍼에게 설명할 때 내가 옆에서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나 때문에 팀 전체 진행은 어지간히 늦었다. ‘샷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 차례가 되면 바로 쳐야 하는 데 그 땐 몰랐다. 내 순서라는 말을 듣고서야 장갑을 끼고 티를 찾기 일쑤였다.(나 같은 여성 골퍼는 보통 양손에 장갑을 끼지 않는가? 당연히 시간도 더 걸린다) 가끔은 티를 콧고 나서야 주머니에 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볼을 가지러 카트에 돌아가기도 했으니 말 다 했다. ‘페이스 오브 플레이(Pace of Play, 경기 속도)’가 골프 에티켓 중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초보 때는 알 턱이 없었다. ‘주머니에 늘 볼 두 개 이상 넣어가지고 다녀라’는 남편 충고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게 된 것은 이미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난 후였다.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볼 찾아주러 왜 쫓아 다녔을까? 그 바람에 내 플레이는 늦어지면서, ‘동반자 볼이 로스트가 되면 함께 찾아주는 게 예의’라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그랬다. 내 볼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은 일이었는데 말이다.

내 생각만 하느라고 남 방해하는 줄도 몰랐다. 남이 퍼팅 할 때 뒤에서 얼쩡거린 경우가 한 두 번이었겠는가? 혹시 볼이 어떻게 휘는지 봐서 참고하려고 그랬다. 뭔가 움직이면 신경이 거슬려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기 쉽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누군가 지금 나에게 그런 짓을 한다면 한 번 쏘아보는 데 내가 그랬을 때 남들은 속으로 얼마나 욕했을까?

내 볼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남의 볼을 쳐 버린 적도 몇 번 있었다. 볼에 마크(볼에 나만의 표식을 하는 것)하는 건 둘째 치고 어느 브랜드 몇 번 볼을 쓰고 있는지라도 기

역해야 할 것 아닌가. 페어웨이 한 가운데 보내 놓은 자신의 볼이 감쪽같이 사라졌을 때 동반자가 짓던 표정이란.

남 샷 할 때 떠든 적도 많았다. 내 판엔 열심히 한다고 캐디에게 이것 저것 물어봤는데 그게 샷 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됐다. “얘기하시는 데 샷 해서 죄송합니다” 남편이 내뱉는 농담이 꾸지람인 줄도 몰랐으니.

몰라서 룰도 많이 어겼다. 연습 스윙하다 볼을 움직인 것 따위는 상수도 가끔 하는 실수이니까 그러려니 한다고 치자. 그런데 벙커에서 스윙하기 전에 클럽 헤드를 모래에 댈 때 지켜보던 동반자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기본 골프 룰 아니 쥘뿔도 모르면서 골프 치러 왔네!’라고 욕했을 것이 틀림 없다. ‘티잉 그라운드에서 배꼽 나오기도 예사였다. 티 마커(티잉 그라운드에 있는 표시)를 잇는 선보다 더 앞에 티를 콧고 플레이 하는 것 말이다. 일일이 지적하자니 서먹서먹 할 까봐 말 안 하고 넘어간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염치 없는 짓도 참 많이 했다. ‘오케이(컨시드를 일컫는 속어)’를 주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넘죽넘죽 잘도 볼을 집어 올렸다. 그리곤 ‘야! 파 했다!’고 좋아했으니 ‘어휴’ 창피하다. 헤저드에 빠지면 한 참 앞으로 나가서 치곤 했다. 잘못된 자리에서 쳐서 올려 놓고도 좋다고 환호했으니 꼴볼견 아니었겠는가?

‘의식이 족해야 예를 안다’는 말로 내 실수에 대해 변명하곤 했다. 먹고 살만 해야 예의를 차린다는 말 아닌가? ‘어느 정도 골프를 칠 줄 알아야 매너도 지키고 룰도 어기지 않을 것 아니냐’는 말이니 핑계로는 그럴싸하다. 그런데 요즘은 ‘예를 알아야 의식이 족하다’는 말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골프 매너도 익히고 룰도 알아야 골퍼를 더 잘 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발전했다는 얘기도. OLP



중국의 차부뚜어 선생과 VS 한국의 나보기(내생각)선생



중국과 한국은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나라다. 오랜 문화전통에서 유래한 ‘근거 없는 자존심’이 국민들의 기개를 높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근대화 역사에서 뒤처지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중국은 중화사상에 푹 빠져 있었는데, 중화사상이란 ‘한족은 가장 뛰어난 민족이며, 한문화는 가장 고도로 발전된 문화이고, 중화제국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다. 1793년 영국의 대사 조지 매킨니(George Macartney)가 정식으로 교역을 하자고 요청하자, 건륭제가 “우리 청나라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대답하며 요구를 거절했다. 약 50년 후 아편전쟁으로 ‘이빨 빠진 사자’가 된 이후에도 기개 하나는 대단했다. 중국인들은 호되게 당한 후에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을 ‘영국이라는 야만족의 여자 추장, 영로여추(英虜女酋)’라고 불렀다.

한국도 자존심이 매우 셧다.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정체성을 지킨 기개 있는 민족이라며, 중국이 불려준 ‘동방예의지국’을 자랑거리로 내세웠다.(일본을 여행해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훨씬 예의바르다고 말한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문명에는 애써 눈을 감고 나라의 문을 닫아 거는 쇄국정책에 나섰다. 양요(洋擾)라는 이름 자체가 ‘서양의 오랑캐가 일으킨 전쟁’을 뜻하는 것이니 얼마나 서양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것인지 알 수 있다.



—
클.
김상민
OLP 7기
책 ‘아버지에게서 받은
100개의 편지’
‘이기적국민’ 저자

중국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것을 개탄해 뜻있는 사람들이 많은 글을 썼는데, 대표적인 글이 민국 8년(1919년) 신생활잡지라는 곳에 실린다. 중국의 사상가이자 교육가인 후스(胡適)가 쓴 차부뚜어(差不多)선생전인데, 중국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인을 유머와 해학을 섞어 잘 설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의 차부뚜어 선생과 비슷한 사람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다. 이를 굳이 표현하자면 '내생각 선생, 나보기 선생'이라고 할 수 있다. '내생각 선생'이란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를 판단하는 데 '내 생각에는~'이란 잣대로 보는 사람을 말하며, '나보기 선생'이란 '나가 보기에는~'이라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일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함께 세계 양강으로 대접받고 있다. 그렇다고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수많은 '차부뚜어 선생'의 전통 탓이다. 한국도 수많은 '나보기 선생, 내생각 선생'으로 인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많다.

그럼 우선 '차부뚜어 선생'을 소개해볼까 한다. 중국어를 전공한 후배가 원문을 나름 정성스럽게 번역했는데, 살짝 윤색했다.

차부뚜어 선생전

여러분,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말하자면, 모두가 알 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성은 차(差,) 이름은 부뚜어(不:多. 차부뚜어란 그제 그거다, 별 차이 없다는 뜻)로, 각 성의 현 과 촌에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분명 그를 본적이 있고, 분명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부뚜어 선생의 이름은 세상사람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국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차부뚜어 선생의 외모는 당신과 저의 외모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잘 보지 못합니다. 두 귀가 있지만 잘 듣지 못합니다. 코와 입이 있지만 냄새와 맛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의 머리는 작지



않지만, 그의 기억력은 흐리고, 그의 생각 역시 주도면밀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별 차이 없으면 그걸로 족하다. 굳이 정확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릴 적 그는, 어머니가 붉은 사탕을 사 오라고 하면 흰 사탕을 사서 돌아오곤 했다. 어머니가 꾸짖으면, 그는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붉은 사탕과 흰 사탕은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직례성의 서쪽에는 무슨 성이 있을까?” 라고 물으면, 그는 ‘산시’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이 “틀렸어. 산시가 아니라 산서야” 라고 지적하면 그는 “산시와 산서는 별 차이 없지 않나요?” 라고 대답했다.

훗날 그는 상점의 점원이 되었다. 그는 글을 쓸 있고

계산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정확하지 않을 뿐이었다. 십(十)자를 자주 천(千)자로 잘못 쓰거나, 천(千)자를 십(十)자로 잘못 썼다. 상점 주인이 화가 나 자주 그를 욕했다. 그는 웃으며 화난 것을 풀어주려 말했다. “천(千)자와 십(十)자는 빼침(획) 하나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별 차이 없지 않나요?”

하루는 급박한 일이 생겨서, 기차를 타고 상해로 가야 했다. 그는 천천히 기차역으로 걸어가 2분을 늦었다. 열차는 이미 떠난 후였다. 그는 눈을 한번 흘겨보고 멀리 떠나는 기차의 연기를 바라본 후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내일 가면 되지.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별 차이 없지 않은가. 기차회사가 너무 열심히 일하네. 8시 30분에 떠나나 8시 32분에 떠나나 별 차이 없지 않은가” 그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속으로는 기차가 왜 2분을 기다리지 않았는지 줄곧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루는 그가 병을 얻어, 가족이 동쪽 거리에 사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갔다. 가족이 급히 뛰어갔지만 의사 선생님을 찾을 수 없어 서쪽 거리에 사는 수의사를 모셔왔다. 차부뚜어 선생이 병이 들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사람을 잘못 데려온 줄 바로 알았다. 하지만 병이 위중하여 고통이 심하고, 마음이 급해 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의사나 수의사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 그에게 진료하라고 해야겠다.” 이에 수의사

중국은 지금 미국과 함께 세계 양강으로
대접받고 있다. 그렇다고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수많은 ‘차부뚜어 선생’의
전통 탓이다.



가 그의 침대 앞으로 다가갔고, 소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차부뚜어 선생의 병을 진료했다. 1시간을 못 넘기고 차부뚜어 선생은 숨을 거뒀다.

차부뚜어 선생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힘겨운 목소리로 말하길 “산 자와.. 죽은.. 자는 별반.. 차이가.. 없다... 무릇... 별.. 차이.. 없으면... 되는 것이다...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말을 남겼다.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은 그를 차부뚜어 선생이라 칭하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두가 그를 두고 일생동안 열심히 살지 않았고, 결단을 내려 본 적이 없으며, 따져본 적이 없었지만 진정으로 ‘턱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에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 ‘원통(圓通: 융통성) 대사’라는 법호를 부여하였다.

그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널리 전해져 점점 커졌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범으로 삼았다. 이에 모두가 차부뚜어 선생이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계으른 자들의 나라(라인국, 懒人国)’가 되고 말았다.

**나보기 선생,
내 생각 선생**

차부뚜어 선생이 ‘원통(圓通) 대사’라는 법호를 부여받은 것처럼, 한국에도 융통성 대사가 참으로

많은데 약간 우습게 표현하면 ‘나보기 선생, 내 생각 선생’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융통성이란 ‘자기 변명 혹은 자기 위주의 편의주의’를 뜻한다고 하겠다.

하루는 나보기 선생이 새벽에 차를 몰고 가는데 판 생각을 하다가 이정표를 놓쳤다. 가만히 보니 마주 오는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중앙선을 넘어 돌려도 되겠구만.”이라고 생각하고 핸들을 꺾어 유턴을 한다. 그가 사거리에 들어서는 데 신호등이 막 노란 불로 바뀌는 중이다. “내 생각에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겠는데”라면서 속도를 높였다가 그만 사거리 가운데에서 ‘끼어들기 신세’가 됐다. 교통경찰이 다가와서 이유를 물으면 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그것도 통하지 않자 ‘한 번만 봐 달라고’ 읊소하는 작전을 펼친다.

자동차 안전띠에 대해서도 그는 나름대로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안전에 큰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잘 매지를 얹고, 택시 뒷좌석의 경우에는 잘 보이지

도 않게 해놓은 경우도 있다. 안전벨트를 매는 게 생명보호에 앞서 준법사항이란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충북 제천의 화재사고 때 왜 소방차들이 외국처럼 불법 주차차량을 밀어버리고 진입하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많았다. 현직 소방관들은 “면책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증 책임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의 나보기 선생은 뉴스를 보면서 화재사건 때 항상 소방차가 늦는다고 비난하지만, 막상 자신의 집 주변에 소방센터가 들어오면(화재 때 훨씬 유리한데도) 기겁을 한다. 수시로 교통이 막히는 걸 용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기가 새해 때 동해안 일출을 즐기던 많은 ‘내생각 선생’들은 화재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서인지 소방서 마당에까지 과감히 주차하는 용기(?)를 발휘하기도 했다.

한국에는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 가운데 애연가들도 있는데, 그들은 엄연히 금연이라고 쓰여 있는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내 생각에는 눈도 쌓였는데 담배 피운다고 산불 날 리가 없잖아. 역시 담배 맛은 산이나 골프장 등 공기 좋은데서 피우는 게 가장 좋단 말이야.”라고 얘기한다.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음식물 재사용이나 반찬 재사용 등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을 많이 털어 놓는다. 실제로 많은 식당들이 비용을 아낀다며 법으로 금지된 음식재사용을 버젓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흥미로운 식당은 그렇게 식당의 잘못을 나무라던 사람들이 한잔 술에 취해서 나올 때쯤이면 여기저기 오물을 쏟아놓거나 노상방뇨를 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원칙이며 자신이 만든 쓰레기는 대부분 되가지고 와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등산이나 낚시터에 가면 왜 그리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나뒹구는 걸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하도 많은 승객들이 쓰레기를 놓고 가서인지 감시원이 쓰레기통 옆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씩쓰레한 마음이 들었다.

추운 겨울에 지하철 통로나 건물 현관을 지나다보면 반드시 문을 여닫게 되어 있다. 외국 생활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면 알게 되는 일이지만,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대체로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간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

각종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시민과 언론은 한결같이 새로운 법과 제도를 요구한다.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으며 진짜 문제는 법의 부재가 아니라 ‘법 실행의 부족’인데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의 지배’인데도, ‘내 생각에는~’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리한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합리화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한껏 보장하되 책임은 스스로 진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데도, 아무런 사고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 탓, 나쁜 이웃들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우리 사고의 틀로 고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광화문의 교보문고 입구 모퉁이에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쓰여진 표지석이 있다. 이 글귀를 살짝 비틀어 ‘사람은 법을 만들고, 법은 사람을 만든다’고 해도 아마도 세상의 진리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2018년은 사소한 법과 제도도 잘 지키는 ‘진정한 준법사회’가 되어 ‘나보기 선생과 내생각 선생’들이 크게 줄어드는 한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그런 면에서 필자부터 ‘내생각 선생, 나보기 선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내심 씩스럽다.) OLP

‘내생각 선생’이란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를 판단하는데 ‘내 생각에는~’이란 잣대로 보는 사람을 말하며, ‘나보기 선생’이란 ‘나보기에는~’이라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일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Český Krumlov

유럽 소도시 여행(2)
체스키크롬로프
가는 길



마을로 진입하기전에 놓여 있는 볼타강

프라하에서 체스키크롬로프에 가기 위해서 전철을 이용해서 안텔역까지 이동 하였다. 안텔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체스키프롬보프행 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이었다. 약 30분 정도 이동 후에 도착한 전철역 근처에 있는 버스터미널은 의외로 너무나 초라했다. 빗물이나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허술한 덮개가 지붕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변변한 대합실 하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터미널이라기보다는 승강장이 맞을 듯 했다. 초행길이고 주변 지리에 익숙치 않아서 우선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해 놓고는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찾았다. 아직 버스의 출발 시간까지는 약 한 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버스터미널 부근에는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잎이 무성한 가로수가 눈에 띄었는데 순간적으로 서울의 가로수인 은행나무가 연상되었다. 터미널 주변에는 커피숍이 없어서 주변을 돌아보던 중에 작은 골목길에 붙어있는 작은 커피숍 간판을 발견 하였다. 겨우 찾아낸 커피숍은 그 시스템이 약간 생소한 커피숍이었다. 즉 커피를 주문하면 직원이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뽑아주는 시스템 이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자판기 커피가 맞지만 직원이 커피를 대신 뽑아주기 때문에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핸드드립 커피는 아니었다. 하지만 자판기 커피의 장점과 바리스타 커피의 장점을 가미한 독특한 시스템의 커피숍이었다. 물론 가격은 자판기 커피 수준이었지만 커피숍 내부는 상당히 고

급스럽게 인테리어 되어있었고 깔끔하고 단정하였다. 즉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커피의 값을 최대한 낮은 실용적인 커피숍이었던 것이었다. 잠시 커피숍에 비치된 잡지를 뒤적이며 시간을 보내자 어느덧 버스의 출발 시간이 가까워져 커피숍을 나와 버스터미널로 이동했는데 승강장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버스 탑승을 위해서 이미 줄서 있었다. 승객 중에 약 반 정도는 한국인들로 보였는데 아마도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많이 알려진 곳 이었던 같았다.

버스의 승객들은 대부분 젊은 커플들이었지만 일부는 모녀 지간의 일행도 있었고 또한 부자지간의 여행객도 있었으며 여자 친구들끼리 어울린 팀도 있었다. 버스는 오래 전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차장이 있는 시스템 이었는데 마침 차장은 남자였고 우리는 그가 안내 하는 대로 탑승 예약 바우처를 보여주고 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 아마도 슈튜던트 에이전시(체스키프롬로프행 버스)는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버스인 듯이 대부분의 한국 여행객들이 인터넷으로 예약한 탑승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정시에 출발한 버스는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따라 운행 하였는데 버스가 마을을 지나고 공장 지대를 지날 때 창밖으로 펼쳐지는 프라하 근교의 모습은 반짝이는 햇살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한동안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던 버스의 창밖에는 언제부터인가 안개가 심하게 밀려오는 듯 하였고 주변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다. 감각적으로 고도계를 보니 고



클.
지태현
OLP 971
Shire-HGT
Representative/
Consultant





02



- 01 체스키크롬로프 마을 전경
- 02 스포르노스티 광장 전경
- 03 성내를 둘러보는 여행객들
- 04 골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굴뚝방 가판대



04

도가 이미 600미터를 가리킨다. 주변이 온통 낮은 구릉지로 되어 있어서 느끼지 못하였으나 버스는 이미 높은 산마루 길을 넘어 가며 마침 지나가는 구름을 헤쳐 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스튜던트 에에전시 버스는 동유럽을 운행하는 다른 장거리 버스들과 마찬가지로 버스 내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차장이 나누어준 헤드폰을 귀에 꼽고는 의자 앞에 설치된 스크린을 터치해가며 음악을 선곡 하였다.

선곡된 곡은 아델(Adele)의 Skyfall이었다. 마침 안개 속을 주행하는 버스에서 듣는 히스키하면서 무게감 있는 아델(Adele)의 Skyfall은 안개 낀 풍경과 너무 잘 어울리는 듯 했다. 그야말로 스코틀랜드의 스카이폴 지역을 지나가는 느낌 그대로였다. 한동안 음악을 듣고 있는데 다시금 창밖이 환해 지는지 버스 안이 환하게 밝아왔다. 버스는 산마루를 넘어 다시 평지에 내려온 듯 했다. 그동안 몇몇 작은 정류장에 정차 했으나 프라하 출발 후 약 3시간 만에 체스키크롬로프 버스 터미널에 도착 하였다. 버스 차장은 체스키프롬로프 관광 후에 오늘 중으로 다시 프라하로 돌아갈 승객들은 근처의 프라하 행 팻말을 확인하고 출발 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애절한 전설이 이어지는 이발사의 다리

체스키프롬로프 터미널은 널찍한 부지에 현대식으로 지어진 독특한 모습의 건물이었다. 현대 먼저 내린 관광객들은 터미널 쪽으로 이동 하질 않고 반대편에 있는 좁은 산길을 올라가기에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약 20분정도 걸어서 고갯길을 넘어가자 길 건너편에 작은 다리가 보였고 다리 건너편에는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 보였다. 마을로 가기 위해서 작은 다리를 건너며 내려다본 다리 아래 흐르는 물줄기는 마을을 돌아 흐르는 볼타 강의 한 줄기였는데 이 강을 건너야 우리의 목적지인 체스키프롬로프의 마을 이라는 것이었다.

다리를 건너자 바로 빨간 지붕과 첨탑이 아기자기하게 어울려 있는 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치 어릴 적에 보았던 동화책에서나 봤음직한 그림 같은 모습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어린 시절에 읽었던 안데르센 동화 속 상상의 나라에 도착한 듯한 느낌이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건물이나 시설이 12개나 되고 나아가서 체스키프롬로프는 마을 전체가 1992년도에는



05

05 볼타 강변의 아름다운 마을 전경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 되었다니 체스키크롬보프는 지역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의 보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도착한 스보르노스티 (Namesti Svornosti)광장으로 불리는 중앙 광장에는 다양한 모습의 건물들이 사각으로 둘러싸고 있었으며 중앙에는 높은 탑이 서있었고 광장의 바닥은 정방형의 돌을 깎아 조성해 놓아 더욱 중세의 정취가 느껴졌다. 마침 단체 관광객들이 모여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우리는 광장의 셋길을 통해서 좀 더 마을로 들어가자 나무로 만든 작은 다리가 나오는데 이는 마을을 휘감고 흐르는 볼타 강을 마을에서 건널 수 있도록 만든 나무 다리였는데 다리 아랫 쪽으로 흐르는 강물이 예사롭지 않게 검은색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다리는 유명한 이발사의 다리로 명명된 다리였다.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슬픈 히스토리가 전해지는 이발사의 다리는 이발사의 딸과 결혼한 왕자의 스토리로서 애꿎게 죽은 이발사를 추모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지는 다리였으며 그 주변 또한 유명한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 하고 있었다. 특히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변 전망은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다. 때마침 다리 위에서는 거리의 예술가가 풍선 예술을 선보이고 있었으며 구석 한편에서는 기타를 치는 거리의 악사도 보였다.

정신없이 주변의 경치에 흠뻑 젖어있는 순간 다리가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해서 자세히 보니 여러 명의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커다란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들이대며 이곳 저곳을 몰려 다니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어 보였다. 아마도 체스키크롬로프는 중국에도 잘 알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소한 굴뚝빵을 먹으며 걷는 성곽길

흐르는 강물의 낙차를 이용한 작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이발사의 다리를 건너자 좁은 골목길에는 여느 관광지나 마찬가지로 작은 기념품 상점들이 촘촘히 붙어있었고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작은 카페도 종종 눈에 보였는데 특별히 체코의 전통 빵인 프레들로라는 빵집에는 여지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길게 줄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굴뚝빵 이라고도 불리는 전통 빵은 반죽을 철봉에 감은 채로 전기스토브에서 구워낸 빵으로 빵이 다 익은 후에는 철봉을 빼내고 철봉으로 인하여 생긴 구멍 난 공간에 계피 가루나 초콜릿 그리고 땅콩 가루나 아몬드 가루를 뿌려 주는 체코의 전통 빵이었는데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도 관광객들이 서있는 줄의 꼬무니에서 차례를 기다리기로 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계피가루와 아몬드 가루로 토핑한 빵을 주문하였다. 불에 바삭 구워진 바삭한 불 맛과 함께 곁에 발라진 초콜릿맛과 계피 향 그리고 아



06



07



08

06 망토다리 전경 07 광장 뒷골목에 그려진 독특한 벽화
08 창의적인 기념품숍의 쇼윈도우

몬드의 고소한 맛이 그야말로 궁합이 잘 맞는 풍미 가득한 빵 맛이였다. 빵을 먹으며 골목길을 걸어서 체스키크롬로프 성에 도착 하였다. 작은 광장을 지나면 아치형태의 성문이 나오고 이를 지나자 멋진 뷰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망토의 다리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는 곳이었다. 특히 망토의 다리에 조성된 가드는 반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가드의 틈새를 프레임으로 잡고 내다보는 마을은 마치 한 장의 그림엽서와 같았는데 이곳에는 유난히 다정해 보이는 많은 부부들의 사진 찍는 모습이 자주 보이곤 했다. 아마도 아름다운 배경 앞에서 찍은 함박 웃는 부부들의 사진은 오래도록 간직할 것으로 생각 되었다.

다리를 지나면 약간 언덕길로 이어지는 마을길이 나오는데 길가의 집에는 모두 문패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현지인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마을을 지나자 그 끝에는 널찍하고 잘 정리된 자메츠카 정원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범상치 않아 보였다. 현대 정리가 잘된 커다란 정원에는 관광객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혹시나 모두들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으나 간간히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혼 사진을 찍는 신혼부부들이 보이곤 했다. 아마도 사진 촬영 장소로 유명한 곳인 듯 했다. 정원 구경을 마치고 체스키크롬로프 성의 랜

드 마크인 후라테크 탑까지 되돌아와서는 성의 전망 탑 앞에 있는 작은 매대에서는 따뜻한 핫 와인을 팔기에 한잔 마셨다. 레드 와인에 계피나무를 넣고 끓여낸 와인은 그윽한 계피 향과 약간의 짙은맛이 어우러졌으나 찬바람을 쏘이며 언 몸을 따뜻하게 녹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넓지 않은 곳이라 둘러 보는데 별로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는 않았으나 어느덧 점심시간이 된 듯하여 마을에 있는 이탈리아 식당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는 좀 더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작은 골목길에는 어김없이 관광 상품을 파는 샵들이 즐비한데 대부분 유리 공예품과 수공예품들이 진열 되어있었고 상당한 예술적 감각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또한 까만 강물이 흐르는 볼타 강변에는 파라솔을 친 강가의 식당들 또한 주변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였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너무도 아름다운 중세풍의 아름다운 도시의 여행을 마치고 예약한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되돌아오는 길에 짧은 하루의 일정이 주마등과 같이 흘러갔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당일치기 여행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체스키크롬로프의 야경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슬쩍 지나치는 젊은 커플이 캐리어를 끌고 숙소를 찾는 모습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체스키의 야경을 볼 수 있을 것 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속에서 그들에게 박수를 쳐 주었다. OLP



30% 인증 커피 생두

baskin BR robbins

ALL NEW café BRis

배스킨라빈스 카페브리즈는 커피 산지 농부들의 삶과 자연환경을 생각하는 Rainforest Alliance Certified™ (열대우림동맹 인증) 생두를 사용합니다.



아메리카노
2,500원



CRAIG & KARL

배스킨라빈스 카페브리즈 커피 리뉴얼을 기념하여, 뉴욕과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듀오 크랙앤칼(Craig & Karl)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커피 컵 디자인을 탄생시켰습니다. 세련된 커피 컵과 함께 카페브리즈 커피를 즐겨보세요!

© 2014 Baskin-Robbins Inc. All rights reserved.

아마존, 알리바바, 엔비디아를 미래에셋대우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고객께 더 많은 부의 기회를 드리기를 위해 미래에셋의 지혜와 경험을 모았습니다.

지금 미래에셋대우에서 세계의 우량주식을 쉽게 만나십시오.

준비된 미래에셋대우 웰스매니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3개국 해외주식거래 서비스

- 해외네트워크 기반의 강력한 글로벌 리서치
- 매월 우량종목 정보와 트렌드 정보 제공
- 24시간 해외투자 전용 주문 데스크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 1588-6800] ■당사는 이 주식거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식거래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0~1.00%(국가별 거래수수료 상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LC 원우수첩이 휴대폰 속으로!

필자: OLC 사무국

2008년 12월, 1~12기 OLC 원우님들의 명단과 OLC 연혁 및 조직도 등이 실려 있는 OLC 회원수첩이 발간된 이후 지속적인 원우증가와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2년마다 제작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첩발간 이후에도 원우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인쇄 방식 상 한번 출력된 이후 내용변경이 곤란하다는 원우수첩 제작 방식의 큰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점차 원우수첩의 활용성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 변경은 물론 원우님들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원우님들 간의 교류와 행사 참여 증가를 이끌 수 있게 원우수첩을 모바일앱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OLC 앱 사용 및 활용방법을 Q&A형식으로 원우님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원우님들이 OLC앱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OLC가 더욱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Q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로그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회원가입과 로그인은 휴대폰 번호 인증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우님의 휴대폰 번호가 사무국에 등록되어 있다면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어플 메인 화면 대신 OLC 멤버 체크 팝업창이 확인되신다면 OLC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OLC 멤버 체크

OLC 멤버로 확인 되지 않습니다.
OLC 사무국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Q 찾고 싶은 원우가 있는데, 어떻게 검색하나요?

A OLC 수첩 메뉴에 들어가신 후 화면 상단의 **Q**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검색 가능합니다. 또한 이름 뿐 아니라 회사명으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상단 아이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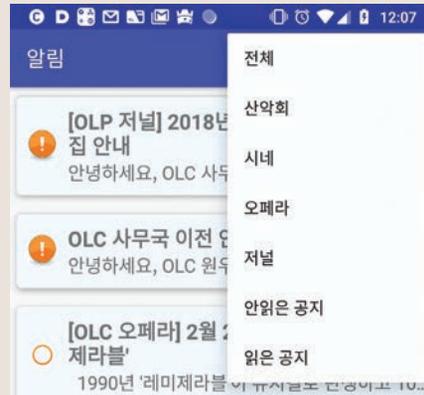
☰ 기수별 / 업종별 원우 명단 확인 가능 **⋮** 전체 목록 / 즐겨찾기 목록 확인 가능

Q 특정 원우의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목록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저장하실 원우를 누르신 후 오른쪽 하단의 **▶** 빨간색 책갈피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된 목록은 원우수첩 메인화면 우측 상단 아이콘의 즐겨찾기 메뉴를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Q 알림사항 중 읽지 않은 공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A 메뉴 상단 중 **⋮** 아이콘을 누르시면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중 안읽은 공지 메뉴를 누르시면 읽지 않은 공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그 외 원우동정(부고, 자녀 결혼 등), 동호회(산악회, 오페라, 씨네), 행사 등 분류별로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그 외 다른 메뉴 안내

일정 OLC 행사를 포함하여 동호회 모임 등 OLC의 모든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LC OLC의 간단한 소개와 현 조직도, OLC 연혁, 회칙, 그리고 OLC 사무국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LP OLP의 소개와 운영방식부터 특전, 교수진, 협찬기관 확인 및 커리큘럼과 OLP 사무국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밴드 밴드 메뉴를 누르시면 바로 OLC 밴드로 이동합니다.

※ 모든 메뉴의 하위메뉴는 메뉴 왼쪽 상단에 있는 **☰** 아이콘을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기수별
활동 소식Opinion
Leaders
Club News

-
- 1기** 1기 이세정 수석부회장 : 한유에너지 대표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1기 주 흥 부회장 : 2017년 10월 22일(일)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1기 김상영 원우 : CJ 커뮤니케이션실 상근고문(부사장)으로 전보하셨습니다.
1기 이백만 원우 : 교황청 주재 한국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1기 이종재 원우 :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1기 조성권 원우 : 2017년 5월 27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 2기** 2기 박대수 원우 : KT CR부문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기 변재운 원우 : 2017년 5월 27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2기 황재성 원우 :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비즈니스 앤 컬처팀 팀장으로 전보하셨습니다.
-
- 3기** 3기 권순환 원우 : 펜앤드마이크 전무이사 겸 편집국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3기 김광기 원우 :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보임되었습니다.
-
- 4기** 4기 류성걸 원우 : 바른정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4기 정돈기 원우 : 2017년 4월 29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4기 신동욱 원우 : TV조선 부분부장으로 이직하셨습니다.
-
- 5기** 5기 신제윤 수석부회장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5기 김승운 원우 : 2017년 12월 2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5기 김영수 원우 : 디지털조선일보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
- 6기** 6기 김광현 원우 :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이동하셨습니다.
6기 안찬수 원우 : 내일신문 편집국 국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6기 홍승일 원우 : 중앙일보디자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 7기** 7기 오철수 원우 :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7기 홍병기 원우 : 중앙일보 선데이국 선임기자로 보임되었습니다.
-
- 8기** 8기 장재진 명예회장 : 한국실험동물협회 3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8기 장윤경 원우 : (주)자이티 대표이사로 전보하셨습니다.
-
- 9기** 9기 고희권 원우 : 기획재정부 제 1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9기 박상용 원우 :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사회 2부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 10기** 10기 박동석 원우 : 아이뉴스24 마켓에디터 겸 비즈니스 전략실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10기 안미현 원우 : 서울신문 부국장 겸 산업부장으로 전보하셨습니다.
10기 정길근 원우 : CJ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10기 정영무 원우 : 한겨레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0기 최우규 원우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기수별
활동 소식

-
- 11기** 11기 이익수 부회장 : 데일리안 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11기 송 일 원우 : 2017년 4월 1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11기 신윤선 원우 : 코나아이(주) 상임감사로 영전하셨습니다.
11기 이현상 원우 :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11기 조진일 원우 : 2017년 11월 18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 12기** 12기 김 석 원우 : 경향신문 오피니언 팀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12기 이기동 원우 : 미래에셋대우 IWC2 RM4 본부장으로 전보하셨습니다.
12기 최현수 원우 : 국방부 대변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 13기** 13기 김대식 원우 : 주 카자흐스탄 대사로 선임되었습니다.
13기 신경렬 원우 : SBS 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13기 이우식 원우 : 한국일보 논설위원실 논설고문으로 전보하셨습니다.
-
- 14기** 14기 윤종진 원우 : KT 부사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
- 15기** 15기 김명일 부회장 : 2017년 8월 25일(금)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15기 김철기 원우 : KT 홍보담당 상무로 승진하셨습니다.
15기 조중식 원우 : 조선일보 편집국 국제부 부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
- 16기** 16기 양윤석 간사장 : SBS 전략기획실 정책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16기 김창연 원우 : 우리은행 외환업무센터 영업본부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16기 김후진 원우 : 한국경제 편집국 편집부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16기 심정근 원우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16기 위정환 원우 : MBN 보도국 국차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16기 정영오 원우 : 한국일보 편집국 산업부 부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
- 17기** 17기 김영식 원우 : 한화생명 홍보실 상무보로 승진하셨습니다.
17기 진병권 원우 : KT 홍보실 상무보로 승진하셨습니다.
17기 홍대선 원우 : 한국자동차기자협회 8대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 18기** 18기 유태형 원우 : 연합뉴스 논설위원으로 전보하셨습니다.
18기 윤보한 원우 : IBK 기업은행 남중지역본부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18기 윤성은 원우 : SK 텔레콤 CR혁신 TF장(상무)로 선임되었습니다.
-
- 19기** 19기 광대환 원우 : 스티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보임되었습니다.
19기 권광석 원우 : 우리프라이빗에쿼티(우리 PE)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19기 정순영 원우 : 한국수출입은행 해양프로젝트금융부장으로 전보하셨습니다.
19기 허 인 원우 : KB 국민은행 은행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 20기** 20기 이재웅 원우 : CBS 보도국 산업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20기 이창재 원우 :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 부행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 OLP 21기 입학안내



모집인원

50명 내외



지원자격

-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언론인
- 공·사기업체의 임원, 간부
- 정부기관 고위 공무원
-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인사
- 법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항시 가능
- 장소: 경제대학원 교학과 Opinion Leaders Program 사무실
계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2호, 우편접수 가능



제21기 주요 학사일정 및 강의시간

- 입학식: 2018년 9월
- 강의기간: 2018년 9월 ~ 2019년 1월
-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Opinion Leaders Program

코아비스가 함께합니다.

1994년 설립된 코아비스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의 지속적인 R&D 분야 투자와 생산 공장 현대화(SMART FACTORY)를 통해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Global Company입니다.

IATF16949 인증 획득 (2018.3)

주요 고객 및 사업분야

- 주요 고객
GM Global, Volkswagen 등
- 사업 분야
자동차용 연료시스템
(Automotive Fuel System)
전기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Electric Car Thermal Management)

주요 수상 이력

- GM SOY (Supplier Of the Year)
7회 수상
- Volkswagen FAST
(Future Automotive Supply Track)
2회 연속 선정





글.
홍재식
OLP 21기 회장
코아비스 대표이사

2017년 9월 14일에 시작된 OLP 19기 과정이 19회 정규강의와 2회
합숙세미나로 힘든 학사 일정이었지만 한 사람의 낙도 없이 42명 모두
무사히 수료할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기쁘고 원우 동기들이 자랑스럽다.

OLP과정 등록을 하고 솔직히 강의에 대한 기대보다는 OLP에 대한 호기심, 오랜만에 맛보는 대학 캠퍼스 분위기, 새로운 원우들을 만난다는 기대감 등이 더 컸었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어김없이 빛나가고 말았다.

세종에 있는 회사에서 KTX를 타고 간다고 하지만 학교까지 가는 길이 수월치 않은 수업나들이로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도 모르게 눈이 말뚱말뚱해 졌다. 이는 강의가 너무 좋았고,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덕분에 19번강의를 한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게 되어 기쁘고 뿌듯하다.

경제학 강의는 경제학과 전공자로서 높은 관심과 나름 이해도가 높다고 과신하고 있었지만, 여러 교수님들의 경제학 이론 및 실물 경제학에 대한 강의는 다시금 머리를 맑게 해 주었고, 근래 들어 어둡침침해졌던 내 눈을 좀 더 밝게 해주었다.

우리나라 에너지 사정과 전망, 디지털 경제와 혁신, 우리역사 바로 보기 강의 등을 통해 시사 상식을 얻는 기회를 가졌고, 전혀 무지했던 BIO에 대한 나의 눈을 깨워주었던 애플론 이종서 대표님의 강의도 좋았다.

또한, 시진핑 신시대 한국의 대방략이라는 강의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책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이해할 수 기회가 되었다.

정유신교수님의 핀테크 강의는 아 이러니하게도 금융시스템과 신용이 낙후된 중국과 동남아에 알리바바페이등의 핀테크가 적합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며,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두려웠던 사업 모델에서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해야만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교훈도 얻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강의를 많이 수강했지만, 역시 서강 OLP 과정은 실력 있는 교수님들이 짜놓은 탄탄한 커리큘럼과 꼭 필요한 강의들로만 채워진 알찬 과정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있게 추천하고 싶다.

한편, 합숙세미나에서 보여준 원우들의 열열한 참석과 반응은 너무나도 놀라웠다.

뿐만 아니라 옛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만나자마자 합숙세미나에서 술과 여흥으로 또한 토론으로 늦은 밤까지 우정과 친목을 나누고 서로서로 배려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다.

이런 열정과 정열이 있기 때문에 21기 원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공했구나! 하고 다시금 느꼈다.

역대 최대 인원 참가였다는 21기 졸업여행에서 보여준 원우들의 열기는 쌀쌀했던 대만의 날씨를 포근하게 녹여주기에 충분했고, 알찬 스케줄과 풍성한 먹거리는 여행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고, 21기 원우들이 보여준 우정과 배려심은 앞으로 우리의 모임이 오랫동안 끈끈하게 이어지리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끝으로, 모두 무사히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밀어주신 김홍균 경제대학원 원장님, 정재식 OLP부원장님, 이강오 교수님, 조교들에게도 기회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21기는 OLC의 새로운 멤버로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 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만 보여주어도 앞으로 OLC의 주축 멤버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클.
이윤환
OLP 21기 사무총장
한화그룹 부장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무엇 보다 많은 여운을 남기는 과정’
OLP에 대한 단상이다. 상반기부터 OLP 참여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부담감이 기쁨으로 바뀌는 건 아주 잠깐이었다.*

9월 입학식때 처음 본 각계 각층에서 모인 분들이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형님이고 동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어느 모임이 이렇게 단기간에 끈끈하게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던가. 잘 짜여진 교육과정과, 스킨십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적절하게 안분된 탓일게다.

목요일 저녁 서강대 정문만 들어서는 순간이면, 시간은 과거로 돌아갔고, 마음은 순수한 20대 청년시절로 돌아갔다. 그때는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1, 2교시 수업에 대한 학구열도 불타 있었고, 이어진 3교시 수업은 압권이었다. 가장 큰 형님과 가장 어린 동생의 21살이라는 나이차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국가, 사회, 인생, 가정사에 대한 선배의 경험과 후배들의 참신함이 묻어나는 대화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물론 금요일 아침의 고단함은 개인 몫이리라.

두 번의 워크샵, 두 번의 부부동반 수업, 한번의 졸업여행은 원우들간의 더 깊은 관계형성과 더불어, 배우자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새삼 일깨워준 시간이었다. 특히 부부동반 대만 졸업여행 때는 신혼여행 코스프레로 인해 동기분들의 원성이 자자했지만, 와이프와 평생 남을 소중한 추억이 남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은 훈훈했다.

무엇보다 헌신적으로 이끌어주신, 정재식 교수님, 이강오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곳은 얼마다 않고 손발이 되어주신 조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OLP정규과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모임으로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이것이 OLP의 힘이 아닐까 싶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LIVE TO TRAVEL, TRAVEL TO LIVE

KTX 매거진

(주)성우에드컴

광고 문의 02-890-0907



달리는 기업 홍보, 국내 최고의 광고 플랫폼, <KTX매거진>과 함께 하세요.

KTX와 ITX-새마을호 전 좌석에
매월 11만부가 독점비치되는 <KTX매거진>.
기업의 꿈을 안고 레일 위를 질주합니다.



취업하고
싶은
기업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선정

‘취업하고 싶은 기업’

브로슈어, 카탈로그, 사보,
사사, 백서, 지속가능보고서

기획, 디자인, 인쇄,
광고촬영, 영상물 제작

The Best Company

금융마케팅
컨택센터 구축 · 운영 · ASP 전문기업

“국내 최초 단지형 컨택센터 구축!”



철탄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고객센터부문 최우수상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 인증



KS서비스 인증

검증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과 인재를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고용정보!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최대의 이윤을 창출해내는 파트너!
금융마케팅 / 컨택센터 구축 · 위탁운영 · ASP / 인재채용에 이르기까지
성공을 위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는 귀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컨택센터 구축 · 운영 · ASP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KB국민카드 / 하나카드 / 우리카드 / NH농협카드 / 롯데카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거래소 / 한국교직원공제회 / 공영홈쇼핑
- 롯데홈쇼핑 / 롯데하이마트 / 청호나이스 / 쿠팡 / 11번가 / LG전자
- KDB생명 / 더케이손해보험 / 신한생명 / 라이나생명 / 동부화재 / 에이스화재

- 1998 「KBS 연중기획, 일자리 100만개를 만듭시다」 공동기획 및 진행
- 2002 컨택센터 위탁 운영사업 실시 (국민카드, LG카드, 현대카드)
- 2009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BEST HRD) 인증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 2010 「KS신용정보주식회사」 자회사 설립 (금융위원회 승인)
- 2011 춘천첨단정보산업단지 준공 (지식경제부, 강원도, 춘천시)
- 2011 일자리 창출지원 유공 대통령상 수상
- 2012 최신 사내 보육시설 - 한마을어린이집 구축 및 개원
- 2013 우수상공인 표창 (지식경제부)
- 2013 일터혁신우수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 2013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 2014 남녀고용평등유공 철탄산업훈장 수상
- 2015 노사문화대상 수상(고용노동부-장관상)
- 2016 KS서비스인증 획득(한국표준협회/콜센터부문)
- 2016 적극적고용개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 2017 고객센터 부문 최우수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 2017 일자리 창출 대통령 유공 표창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쓸로하면 모든 뱅킹이 알아서 척



‘신한 SOL’이 나에게 딱맞춘 뱅킹 솔루션을 알아서 챙겨주니까

☞ 연 3%(세전) 이율로 든든하게 척! 선물하는 적금 ☞ 맘 원하는 메뉴만 한눈에 척! 맞춤메뉴 ☞ 반복되는 거래는 자동으로 척! 나만의 해시태그 ☞ 채팅 중에도 실시간 송금이 척! 키보드뱅킹 ☞ 365일 내 손안에 비서가 척! 시 스피메이트



지금 ‘신한 SOL’
다운로드 받으세요

Available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슈퍼앱 신한 SOL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WITHUS

위더스제약(주)
WITHUS PHARMACEUTICAL CO., LTD.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 위/더/스/제/약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위더스제약이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기술, 생명과학

위더스제약은 새로운 신약개발과 보급을 통해 수천 년간 이어져온 질병으로부터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B가 디지털에게 전하고 싶은 첫번째 이야기

인공지능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세상
아빠의 목표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행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 마음까지 담아주세요

365일 36.5°C
KB 디지털금융

유해해진~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바디를 바꾸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피로를 부르는 유해환경,
하루한알  14가지 성분이 누적된 피로로부터 바디를 지킨다

- Vitamin A
- Vitamin C
- Vitamin B1
- Vitamin B2
- Vitamin B3
- Vitamin B5
- Vitamin B6
- Vitamin B7
- Vitamin B9
- Vitamin B12
- Vitamin E
- Selenium
- Magnesium
- Zinc



건강을 지키는 바디비타민 **토비콤 골드정**
TOBICOM G 골드정

용법/용량 : 1일 1회, 1회 1정 씩